18일 Market Index
코스피 5067.44 (+98.96)
코스닥 662.81 (+12.75)
금리(국고채 3년) 3.736 (+0.011)
환율(원·달러) 1333.0 (-5.2)

metro 경제

하나금융그룹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02)721-9841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뉴메트로 11주년 대한민국 희망을 찾아서 2026년 11월 19일 목요일

# ‘AI커닝’ 막을 안전설계 제각각… 엇박자 정책에 ‘구멍 숭숭’

**대학수학능력시험 D-DAY**

**초소형 카메라·AI안경 등**
**촬영·알림기능 공통 안전기준 전무**
**과기부, 온라인 판매 기기 인증 점검**



스마트안경 너머로 서울 시내의 한 수능 시험장 학교 모습이 보이고 있다. /뉴시스

초소형 카메라와 인공지능(AI) 안경을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 파문이 확산하면서 전자기기 안전설계가 도마에 올랐다. 특히 제조사마다 촬영 관련 안전장치가 제각각이지만 정부는 이를 관리할 공통 기준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18일 전자업계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초소형 카메라와 AI 안경의 촬영 알림·차단 기능을 의무화한 공통 안전기준이 없어 제품별 보호장치에 차이가 있다. 현행 전파법상 적합성평가도 전자파·무선통신 등 기술적 적합성을 확인하는 절차로, 부정행위 방지 기능은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기사 4면〉

안전설계 규제를 담당할 정부 부처도 명확하지 않다. AI 안경의 안전설계 기준을 둘러싼 관계부처의 역할도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촬영 표시등과 카메라 차단 기능을 기술적 사안으로 보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안경의 기능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입장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9일 스마트안경 제조사에 촬영·녹음 사실을 주변 사람이 인지할 수 있도록 설계할 것을 권고하고 연내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촬영 표시등이나 가림 감지 장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은 아니며 위장형 초소형 카메라 등 다른 전자기기도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처럼 공통 안전기준이 없는 만큼 보호장치 적용은 사실상 제조사 판단에 맡겨져 있다. 삼성전자가 구글·젠틀몬스터 등과 개발한 AI 안경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는 촬영 표시등을 가리면 카메라가 비활성화된다. 메타와 중국 로키드도 AI 안경에 촬영 표시등과 가림 감지 기능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기능은 주로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을 알리거나 차단하기 위한 것이며 AI의 실시간 정보 처리나 개조 전자기기에는 보호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위장형 초소형 카메라까지 동일한 안전장치를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는 상태다.

실제 부정행위에 악용되는 전자기기도 일반 안경과 구별하기 어려운 AI 안경부터 단추·필기구 형태의 초소형 카메라, 개조 계산기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외관만으로 촬영 기능을 식별하기 어려워지면서 시험장 감독에도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해외서도 위장형 전자기기의 판매 사례가 확인됐다. 국내 보안업체 에스투더블유(S2W)가 공개한 조사에서는 중국어권 텔레그램 채널에서 단추형 카메라와 초소형 이어폰 등의 판매 게시물이 발견됐다.

문제는 관련 제품의 국내 유입이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초소형 특수카메라 수입량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배 이상 증가했다. 다만 해당 통계에는 일부 AI 안경도 포함돼 있어 이를 모두 위장형 카메라나 부정행위용 장비로 볼 수는 없다.

수입 규모가 확대되고 있지만 위장형 카메라의 유통이력을 관리할 별도 제도는 마련되지 않았다. 정부는 2017년 관련 제품의 수입·판매업자 등록과 유통이력 관리를 추진했으나 법제화에 실패해 구매자와 거래 내역을 포괄적으로 관리할 법적 근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최근 정부의 대응 역시 미인증 제품 단속에 집중돼 있다. 과기정통부는 중앙전파관리소와 함께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전자기기의 인증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네이버와 당근 등 온라인 플랫폼도 부정행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상품의 판매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인증받은 제품도 부정행위에 악용될 수 있어 미인증 제품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정부는 오는 19일 수능을 앞두고 AI 안경 검사와 의복 단추 가림 조치 등 시험장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제조사별 안전설계와 위장형 전자기기의 유통관리 기준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았다.

정부 부처 관계자는 “휴대전화에 탑재된 카메라도 변형 카메라의 일종으로 볼 수 있을 만큼 제품의 형태와 사용 목적이 다양하다”며 “칼이 위험성을 지니면서도 요리에 사용되는 것처럼 카메라 역시 정상적인 활용 목적이 있어 일률적인 규제 지침을 즉각적으로 마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 “韓·中 관계 전면복원 넘어 성숙한 동반자 관계 희망”

**李 대통령-시진핑 정상회담**
**“한반도 평화·안정, 양국의 이익**
**FTA 발판, 경제협력 발전시켜야”**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8일(현지 시간) 중국 선전 치린산장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뉴시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에이펙·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 선전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관계가 전면 복원을 넘어서 더욱 성숙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선전 치린산장(영빈관)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과 34분 가량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의 만남은 지난해 11월 경주, 올해 1월 베이징에 이은 세 번째로, 이번 회담에선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포함한 역내 안보 정세가 핵심 의제로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9일 선전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사상 첫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3자 회담을 하는 만큼, 한국을 배제한 채 북한의 핵 군축 등 한반도 안보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양국의 공동 이익에 해당되는 만큼 함께 노력해서 한반도 평화 공존의 시대를 열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성숙하게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한중관계에 대해 “1년 전 약속했던 대로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흐름은 공고히 자리 잡았고, 우리 국민들도 일상에서 양국 관계 발전의 성과를 체감하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 한중 교역액은 전년 동기 대비 50% 가까이 늘었고, 양국 간의 인적 교류도 2019년 이후 7년 만에 10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경제 협력을 두고도 “한중 양국은 내년에 수교 35주년이 된다. 이 뜻깊은 계기를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다”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 투자 협상 타결을 발판으로 양국이 경제 분야에서도 수평적 호혜적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시진핑 주석은 “현재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지만 중한 양국은 모두 다자주의 그리고 자유 무역의 수혜자”라며 “중국은 한국 측과 함께 소통과 조율을 강화하고 글로벌 상업망, 공급망의 안정과 원활함을 수호하고 더욱 공조하고 글로벌 관리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중국 측은 한국 측과 함께 노력하여 작년 경주 회의 성과를 기반하고, APEC 중국의 해에 각종 의제를 추진하며 아태지역 FTA 그리고 아태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며 지역의 평화와 발전을 하는데 더 큰 기여를 하겠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社告

메트로 조경대상 休&休

**2026 입주 아파트 조경 우수단지 시상**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이 ‘메트로 아파트 조경 대상 휴앤휴(休&休)’의 주인공을 선정합니다.

올해 메트로신문 ‘아파트의 미학 휴앤휴’에 소개된 아파트 가운데 ▲조경혁신상 ▲친환경단지상 ▲스마트환경상 ▲미래가치대상 ▲테마조경상 ▲브랜드혁신상 ▲커뮤티니혁신상 등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주변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조경, 스마트 첨단 기술의 융복합 구현, 녹지공간 등 아름답고, 편안한 아파트단지 선정을 통해 건설사와 입주민을 응원하기 위한 조경대상입니다.

‘2026metro 아파트 조경대상 휴앤휴’는 올해 소개된 30여곳을 대상으로 대학 교수 등 전문가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1차,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시공사는 물론 아파트 주민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심 사 방 식 : 소개 아파트단지 대상으로 심사위원 합의로 선정
◆수 상 명 : 조경혁신상·미래가치상 등
◆수상작 선정 : 12월 1일
◆시 상 식 : 12월17일

## 메트로 한줄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입국 거부’ 日정부에 항의서한…“외교적 논란 해소해야”
▲국힘, ‘조작 징계’ 추가 폭로에 내홍 지속…“정치공작” “張 입장 밝혀야” /사진 뉴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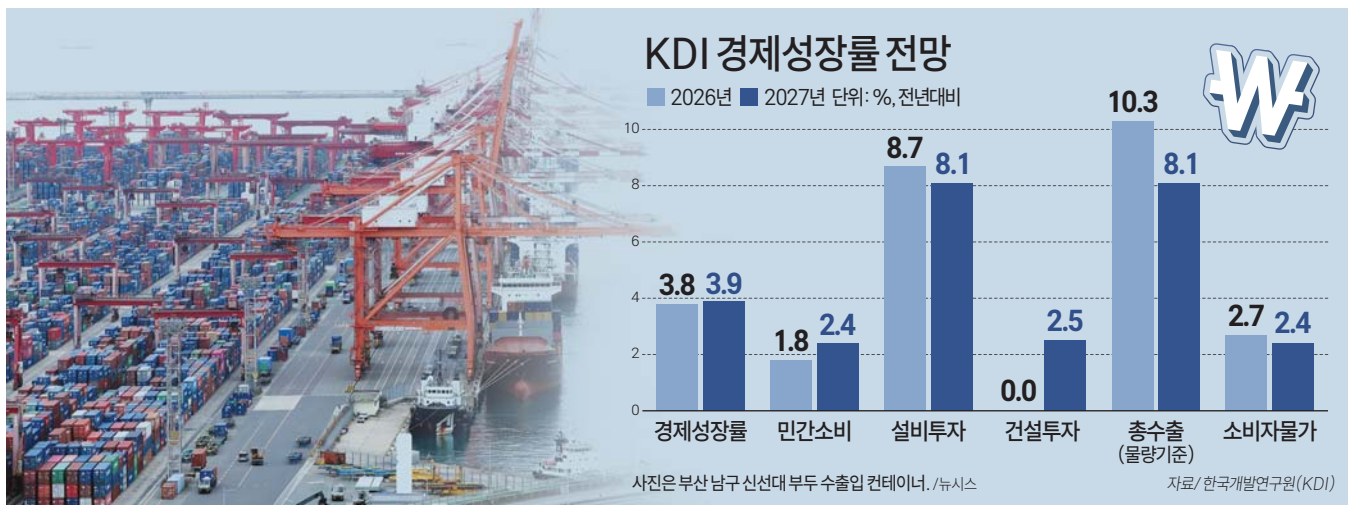
▲하루 앞두고 지침 변경…‘흑색 연필’ 제외 필기구 휴대금지
▲중앙선관위 직원 등 8명 구속영장 청구…특검 출범 72일만

▲조태용 전 국정원장, 징역 2년6개월 확정…“지위 이용해 정치관여”
▲美 국무 “트럼프, 김정은과 대화 준비돼 있어…회동은 미정”

# 올해 3.8%·내년 3.9% 성장… '반도체 쏠림' 체감경기 격차

**KDI, 2026 하반기 경제전망**

**성장의 3분의 2 반도체가 기여**
**GDP성장률 변동폭 확대 우려**
**일부 고임금 산업에만 수혜 집중**
**서민·소상공인, 산업간 격차 확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글로벌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열풍에 힘입어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 후반대로 대폭 끌어올렸다. 반도체 호황이 수출과 설비투자를 견인하며 내년에도 고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전체 성장의 3분의 2가량을 반도체가 떠받치는 구조적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경제 지표의 화려함과 소상공인 등이 체감하는 현장 경기 사이의 괴리는 여전히 과제로 남을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 하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지난 8월 발표 당시 전망치(올해 3.2%, 내년 2.2%)와 비교하면 대폭 상향 조정된 수치다.

**◆ 반도체 날개 달고… 올해 3.8%·내년 3.9% '고공행진'**

KDI는 대규모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 지속을 근거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3.8%, 내년에는 3.9%로 전망했다.

부문별로 보면 설비투자는 올해 8.7%, 내년 8.1%의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건설투자 역시 비주거용 건축 및 플랜트 공사 개선에 힘입어 올해 0.0%에서 내년 2.5%로 반등할 것으로 관측됐다. 총수출(물량 기준)은 올해 10.3%, 내년 8.1% 증가하며,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올해 5162억 달러에서 내년 6013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봤다.

내년 경제 흐름은 상반기 3.7%, 하반기 4.0%로 예상됐다. 수출 호조에 이어 하반기로 갈수록 반도체 호황에 따른 소득 증가 효과가 나타나면서 민간소비 증가율이 상반기 1.6%에서 하반기 3.1%로 확대되고, 취업자 수 증가 폭도 올해 12만 명에서 내년 20만 명대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다.

물가의 경우 국제유가와 환율 하락 안정세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2.7%에서 내년 2.4%로 둔화되겠지만, 높은 수요 압력으로 인해 식료품·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올해(2.6%)에 이어 내년(2.5%)에도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분석됐다.

**◆ "성장의 3분의 2는 반도체… 대외 변동성엔 취약"**

이번 경제 전망치 상향의 배경에는 경제 전체에서 반도체 등 전자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의 급증이 자리 잡고 있다. 김미루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반도체를 포함한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 부분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원래는 10% 아래였으나,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만 20.7%까지 올라갔고 하반기를 포함하면 23%를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은 "올해 성장률의 반도체 기여도는 절반 정도이며, 내년 3.9% 성장 중 약 3분의 2 정도를 반도체가 기여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반도체 생산뿐만 아니라 관련 설비투자, 공장 건설 등의 파급효과까지 더해져 전체 성장을 강력하게 밀어올리고 있다는 뜻이다.

다만, 김미루 부장은 "이 부문의 가중치가 커져 전체 GDP 성장률의 변동 폭도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이쪽 성장률이 잘 나오면 4%를 넘을 수 있지만, 반도체 수요가 위축되면 성장률이 3.5% 아래로도 떨어질 수 있는 만큼 변동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위험 요인으로는 미국의 AI 데이터센터 건설 지연·축소 및 중동 지역 긴장에 따른 에너지 수급 차질 등을 꼽았다.

**◆ 온기는 일부에 집중… "체감경기 격차 해소와 구조개혁 필요"**

지표 상의 '역대급 호황'에도 불구하고 서민과 소상공인이 느끼는 온기가 더딘 이유에 대해서도 진단이 나왔다. 반도체 기업 임직원들의 성과급 지급 등으로 소비 총량은 늘어나겠지만, 수혜가 일부 고임금 산업과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KDI가 함께 발표한 현안 분석에 따르면, 최근 경제성장률 반등에도 불구하고 실질임금이 하락한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비중은 50% 내외에 달하며, 비반도체 부문의 생산성 정체와 한계기업 증가가 겹쳐 산업 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KDI는 "내년에도 기조적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2%)를 상당 폭 웃돌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통화정책은 긴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재정 정책에 대해서도 "경기가 상당한 확장세에 있는 만큼 재정이 물가에 추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지출은 실질적인 생산성 제고로 이어지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한화시스템, 드론 방어 레이다 美 수출길

**美 방산기업과 계약… 파일럿 수출**
**정유시설·데이센터 등 민간 우선배치**


한화시스템이 개발한 단거리 AESA 레이다 실물. /한화시스템

한화시스템이 드론 방어용 단거리 레이다를 미국에 수출하며 중동에 이어 북미 시장에 진출했다. 드론 위협이 전장을 넘어 산업 시설로 번지면서 군과 민간 모두에서 수요가 늘고 있어, 이번 수출이 대규모 후속 계약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한화시스템은 최근 인공지능(AI) 기반 대공방어 시스템을 개발하는 미국 방산기업 리벨리온 인더스트리즈(Rebellion Industries)와 단거리 능동위상배열(AESA) 레이다 수출 계약을 맺었다고 18일 밝혔다. 계약은 대규모 수출에 앞서 소량을 먼저 공급해 현지 적합성을 검증하는 파일럿 수출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공급 수량과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미국 수출은 지난해 12월 보잉에 항공전자 장비를 공급한 데 이어 두 번째다.

납품은 2027년 초까지 순차적으로 이뤄지며 미국 내 정유 시설과 데이터센터, 물류센터, 종합경기장 등 민간 인프라에 우선 배치될 예정이다. 양사는 대규모 추가 공급을 위한 후속 계약도 논의하고 있다.

단거리 AESA 레이다는 저고도로 침투하는 전투기와 공격헬기, 드론 등 근거리 공중 위협을 탐지·추적한다. 안테나와 본체, 전원을 하나로 묶은 일체형 구조로 크기와 무게를 줄여 전차·함정 같은 무기체계는 물론 민간 시설과 차량에도 탑재할 수 있다. 인공지능(AI)을 적용해 안개나 전자파 간섭이 있는 환경에서도 조류와 무인기를 정확히 구분한다.

한화시스템은 단거리 AESA 레이다를 탐지거리별로 세분화해 제품군을 넓힐 계획이다. 방산 분야에서는 먼 거리의 빠른 표적을, 민수 분야에서는 가까운 거리의 표적을 집중적으로 탐지하는 레이다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수출하는 10km 제품에 더해 내년 초까지 5km와 1km 제품을 추가로 개발하고 구미사업장 등에 자동화 라인을 도입해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한화시스템 관계자는 "현재 미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해외 지역에서도 단거리 AESA 레이다를 향한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성과가 다기능레이다(MFR)에 이어 또 하나의 강력한 K-방산 수출 품목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 가계빚 2030.5조… 증가폭 1년 반 만에 최소

**한은, 전년대비 65.2조 3.3% 증가**
**가계대출 잔액 1896.8조, 4.7조↑**
**주택 거래·아파트 분양 감소 영향**

올해 3분기 말 가계빚이 2030조5000억원으로 늘었다. 주택관련 대출 증가세가 둔화하고 기타대출이 감소하면서 전체 증가폭은 1년 반 만에 가장 작았다. 반면 신용카드 결제 등을 포함한 판매신용은 증가폭이 커졌다.

1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3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9월 말 가계신용 잔액은 2030조5000억원으로 전분기 말보다 9조8000억원(0.5%) 증가했다. 전년동기와 비교하면 65조2000억원(3.3%) 늘었다.

분기 증가액은 2분기 26조4000억원에서 크게 축소됐다. 2025년 1분기 2조7000억원 증가 이후 1년 6개월 만에 가장 작은 규모다. 가계신용은 금융기관 등의 가계대출과 외상 구매대금인 판매신용을 합한 통계다.

가계대출 잔액은 1896조8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4조7000억원 증가했다. 증가액은 2분기 25조3000억원보다 줄었다. 이 역시 지난해 1분기 이후 최소였다.

상품별로는 주택관련대출이 9조6000억원 늘어 전분기 12조2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축소됐다. 잔액은 1202조3000억원이었다. 주택관련대출에는 개별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집단대출이 포함된다.

한은은 주택 매매거래와 아파트 분양물량 감소가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신고 기준으로 2분기 20만5000호에서 3분기 16만1000호로 줄었다. 아파트 분양물량도 같은 기간 7만4000호에서 6만2000호로 감소했다.

기타대출은 전분기 13조1000억원 증가에서 3분기 4조9000억원 감소로 돌아섰다. 잔액은 694조5000억원이었다. 증시 조정에 따라 은행 신용대출과 증권사 신용공여액 등이 줄어든 영향이다. 증권사 신용공여액은 2분기 4조2000억원 증가에서 3분기 3조1000억원 감소로 전환했다.

기관별로는 예금은행 가계대출이 8조1000억원 늘어 전분기 13조3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줄었다. 다만 은행의 주택관련 대출 증가액은 6조8000억원에서 9조원으로 확대됐다. 은행권 전체 대출 증가세가 둔화한 것은 기타대출이 6조5000억원 증가에서 9000억원 감소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전분기 3조1000억원 증가에서 1조원 감소로 전환했다. 기타금융기관 등의 대출도 8조9000억원 증가에서 2조4000억원 감소로 돌아섰다.

판매신용은 대출과 다른 흐름을 보였다. 9월 말 잔액은 133조7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5조원 늘었다. 증가액은 2분기 1조1000억원에서 확대됐고 2021년 4분기 5조2000억원 이후 가장 컸다.

신용카드 이용규모 확대가 판매신용 증가를 이끌었다. 개인 신용카드 이용액은 2분기 208조3000억원에서 3분기 212조8000억원으로 늘었다.

한은은 이번 공표에서 업권분류 조정과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기초자료 정비를 반영해 과거 통계 일부를 수정했다. 기초자료 정비에 따른 시계열 수정은 지난 2016년 6월 이후 자료에 적용됐다. /김주형 기자 gh471@

# 서울 개봉·목2·수유·하월곡 모아타운 추진

**총 6319가구 규모 조성**

서울 구로구 개봉동과 양천구 목2동, 강북구 수유동, 성북구 하월곡동의 노후 저층주거지가 총 6319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들 지역의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심의하고 용도지역 상향과 사업성 개선 방안 등을 반영해 정비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열린 제13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본위원회에서 모아타운 4곳의 관리계획안이 각각 수정의결 및 조건부 의결됐다고 18일 밝혔다.

구로구 개봉동 20 일대(6만5416.6㎡)는 기존 1161가구에서 324가구 늘어난 1485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매봉산과 인접한 저층주거지로 노후 건축물 비율이 72.1%에 달하는 지역이다.

양천구 목2동 231-27 일대(7만2347㎡)는 모아주택 3곳을 통합개발해 임대주택 287가구를 포함한 총 1786가구 규모로 조성한다.

목동 택지지구와 인접한 이 지역은 구릉지에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해 재개발 추진이 어려웠던 곳이다. 이번 계획에서는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임대주택 부담을 줄였다. 건축물은 최고 22층으로 계획됐다.

강북구 수유동 141 일대(9만3814.5㎡)는 모아주택 6곳을 통해 기존 1373가구에서 1068가구 늘어난 총 2441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lhj@

# AI 필요하지만 실행 더딘 中企… 현장안착·사업화 이끌어야

**AI 3강으로 가는 길**

**❸ AI 확산과 후속 과제**

**도입 필요성에 中企 71.4% 공감**
**구체적 추진 계획은 17.6% 그쳐**
**기업별 단계 맞춤형 지원 등 필요**

**여야, 활용·확산 지원 입법 추진**
**기술 개발·실증 넘어 시장 진출로**
**산업 현장 전문인력 양성도 과제**




이형일(왼쪽부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하정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서 열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목표로 입법과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가운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후속 과제에도 관심이 쏠린다. AI 도입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실행에 나서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기술 개발과 실증 성과를 실제 사업화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산업 현장에서 AI를 활용할 인력을 키우는 일도 과제로 꼽힌다.

**◆AI 필요하지만 실행은 먹구름… 기업별 도입 단계 맞춰 지원해야**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가 이달 2일 발표한 '2026년 중소기업 AI 도입·활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메인비즈기업(경영혁신형 중소기업) 307곳 가운데 71.4%가 경쟁력 확보와 지속 성장을 위해 AI 도입·활용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향후 2년 안에 도입 확대와 고도화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세운 기업은 17.6%에 그쳤다. AI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기업은 많지만 실제 도입 준비는 더딘 셈이다.

기업이 겪는 어려움은 도입 단계에 따라 달랐다. 검토·준비 단계에서는 적합한 활용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이, 구축·실증 단계에서는 업무 특성에 맞춘 시스템 수정과 기존 데이터 연계가 주요 장애 요인으로 꼽혔다. 실제 활용 단계에서는 사용료·유지비 등 추가 비용과 AI 결과물을 검토할 역량 부족이 문제로 나타났다.

이는 솔루션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별 업무에 맞는 적용 과제를 찾고 기존 시스템과 연결해 지속적으로 활용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메인비즈협회도 도입 진단과 과제 발굴, 솔루션 매칭, 시범 적용, 성과 검증을 잇는 단계별 지원체계를 제안했다.

**◆중소기업 AI 확산 위한 여야 입법 논의**

국회에서는 중소기업의 AI 도입과 활용을 지원하는 입법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은 중소기업 AI 활용 촉진 계획과 전담기관, 학습용 데이터 지원, 지역별 확산 거점 등의 근거를 담았다. 기업 진단부터 데이터 확보, 실증과 사업화까지 잇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도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박성민 의원은 지난 4월 '중소기업 인공지능 도입 및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이철규 의원은 6월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확산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두 법안에는 중소기업 AI 활용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과 금융·세제 지원, 전문인력 양성, 데이터 확보 지원, 규제 개선, 지역 혁신거점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두 법안은 지난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뒤 소위원회로 회부됐다. 중소기업이 AI 도입을 검토하는 단계부터 현장 적용과 인력 확보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법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논의가 여야에서 진행되고 있다.

**◆실증에서 사업화로… 지원 이후 성과까지 확인해야**

기술 개발과 실증에 투입된 자원이 실제 시장 진출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도 과제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지난 6일 하정우 부위원장 주재로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회 운영을 프로젝트·성과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국가 AI 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위원회 태스크포스(TF) 구성·운영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여러 부처에 걸친 핵심과제를 추진할 TF를 구성해 실행 상황과 성과를 점검하겠다는 구상이다.

계획에 따르면 'K-AI 풀스택 생태계 구축 TF'는 국산 AI 모델과 신경망처리장치(NPU·AI와 딥러닝 연산을 빠르고 적은 전력으로 처리하도록 설계된 반도체)의 조합 10개 이상을 검증하고, 이를 활용한 AI 서비스 3종을 개발해 공공·산업 현장 5곳 이상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산 AI 모델·서비스·NPU 기업이 참여하는 'K-AI 풀스택 얼라이언스(동맹)'는 2027년 3월까지 출범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관계 부처와 TF별 참여 인력, 성과지표, 세부 추진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회의에서 "이제는 AI 대전환의 기반을 성과로 연결하고 우려 요인은 적극 관리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결국, AI 3대 강국 구상의 성패는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중소기업이 AI를 현장에 도입해 실제 사업 성과로 연결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박경수 기자 gws0325@metroseoul.co.kr

# 앤트로픽 상장 기대감 고조… 국내 증시는 자금 이탈 우려에 '긴장'

**美 19일 나스닥 거래 시작 예정**
**공모가 희망 상단 웃돌 가능성**
**반도체 등 AI 관련주 매도 압력 우려**
**상장 이후 수급 부담 완화 전망**

미국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의 공모가가 희망 범위 상단을 웃돌 수 있다는 소식에 상장 첫날 매수를 노리는 투자자들의 기대도 커졌다. 반면 공모 자금이 기존 증시에서 빠져나가 국내 반도체주까지 매도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금융투자업계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제출 자료에 따르면 앤트로픽은 미국 현지시간 18일 공모가를 확정하고 19일 나스닥에서 종목코드 'ANT'로 거래를 시작할 예정이다. 한국시간으로는 19일 밤이다. 미국 정규장은 오후 11시30분에 열리지만 첫 체결은 이보다 늦어질 수 있다.

희망 공모가는 주당 70~78달러, 공모 주식 수는 8억2500만주다. 상단 가격을 적용한 공모 규모는 643억5000만달러다. 별도로 추진하는 사모발행 260억달러를 더하면 전체 자금조달 규모는 약 903억5000만달러에 이른다.

맥쿼리는 투자자들이 앤트로픽 주식을 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보유 주식을 팔 경우, 반도체와 신생 클라우드 기업 등 AI 관련주에 매도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국내 주식 매도 자금이 실제 앤트로픽 공모로 향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화투자증권은 앤트로픽 공모액이 S&P500 시가총액의 0.094%로 스페이스X 상장 당시(0.118%)보다 작지만, 국내 증시의 자금 여건은 악화했다고 봤다. 투자자예탁금은 지난 16일 86조9247억원으로 6월 4일 고점(139조6948억원)보다 37.79% 줄었다.

하장권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공모액의 규모는 작아도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셈"이라며 "IPO의 수급 부담은 공모가를 정하는 수요예측 구간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상장 후에는 부담이 누그러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화투자증권이 살펴본 과거 대형 IPO 8건에서 코스피는 상장 전 10거래일 평균 3.0% 하락했지만 상장 후 20거래일에는 평균 2.8% 상승했다.

상장 이후에는 지수 편입에 따른 매수세가 예상된다. 지수 리서치업체 인트로픽은 지수 추종 펀드의 앤트로픽 매수 수요를 약 190억달러로 추산했다.

공모 물량의 약 28%다. FTSE러셀은 요건을 충족하면 12월 14일부터 앤트로픽을 러셀 지수에 반영할 예정이다. 공모주식은 전체 발행 주식의 약 6%여서 매수가 집중되면 초기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유진투자증권은 대규모 IPO가 증시 상승 사이클 후반에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고 경계했다. 2000년 대규모 IPO 이후 S&P500지수는 이듬해 14.1%, 그다음 해 17.3% 하락했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앤트로픽 상장은 AI 산업의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서도 "역사적으로 대규모 IPO 이후 주식시장은 좋지 못했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 엔비디아, 젠슨 황 공백에도 날았다… 분기 매출 155조 '신기록'

**AI 반도체 수요에 영업익 115%↑**
**데이터센터가 전체 매출 93% 차지**
**이사회, 황 전 CEO 재선임 가능성 일축**

젠슨 황 전 최고경영자(CEO)의 퇴진으로 경영 불확실성이 커진 엔비디아가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에 힘입어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했다. 다만 이사회는 황 전 CEO의 복귀에 선을 그으며 후임 CEO 선임 방침을 재확인했다.

18일 엔비디아는 지난 3분기(8월부터 10월 매출은 1158억달러(약 155조원)로 전년 동기 대비 103%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 분기보다 20% 늘어난 수준이며 시장 예상치인 1091억달러(약 146조원)도 웃돌았다.

영업이익은 775억달러(약 104조원)로 전년 동기 대비 115% 증가했고 순이익도 653억달러(약 87조원)로 105% 늘었다.

이같은 실적 호조는 AI 데이터센터 사업이 이끌었다. 데이터센터 부문 매출은 1076억달러(약 144조원)로 전년 동기 대비 110% 증가해 전체 매출의 약 93%를 차지했다. 대형 클라우드 업체와 AI 개발기업의 투자 확대가 반도체 수요 증가로 이어졌다.

차세대 AI 연산 플랫폼 '베라 루빈(Vera Rubin) NVL72'의 공급도 본격화됐다. 엔비디아는 3분기 베라 루빈의 양산과 출하를 시작했으며 구글 클라우드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오라클 클라우드 등 주요 클라우드 업체에도 해당 시스템을 공급했다.

콜레트 크레스 엔비디아 임시 최고경영자(CEO) 겸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실적 설명회에서 베라 루빈의 생산과 공급이 역대 신제품 가운데 가장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AI 반도체 수요 증가에 힘입어 4분기에도 매출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엔비디아는 4분기 매출을 1300억달러(약 174조원)로 예상했다. 다만 중국 데이터센터용 반도체 매출은 이번 전망에 포함되지 않았다.

내년 매출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70%에서 75%로 5%포인트(p) 상향 조정했다. 크레스 임시 CEO는 전망치 상향의 배경으로 AI 인프라 수요 증가와 반도체 공급능력 확대를 꼽았다.

반면 메모리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으로 수익성은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4분기 매출총이익률은 약 72% 수준으로 예상했으며 이는 이는 3분기(74.8%)보다 낮은 수준이다.

엔비디아는 AI 반도체 생산 확대에 맞춰 부품업체와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이날 회사는 삼성전기와 반도체 패키지기판 공급계약을 새로 체결했으며 앰코테크놀로지, 이비덴, 유니마이크론 등 글로벌 협력사와 생산능력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실적 발표에서는 황 전 CEO의 복귀 문제도 거론됐다. 하비 존스 엔비디아 이사회 의장은 황 전 CEO의 사임을 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수락했다며 "젠슨 황을 CEO로 재선임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엔비디아는 후임 CEO 선임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국가안보 및 수출통제 감독위원회를 신설해 대외 규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남영 기자koogija_tea@

# 흑색연필만 허용, 단추엔 스티커… AI 부정행위 대책 '분주'

**수능 D-DAY**

**휴대금지 필기구 시험장서 일괄지급**
**옷 단추에 부착할 스티커 함께 배부**
**새 안경 맞추는 등 수험생 '부담'**
**논술고사도 대응 가이드라인 마련**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소집일인 18일 N수생(졸업생·검정고시생)수험표 배부 장소인 경기 수원시 장안구 수원북중학교 체육관에 수험생 유의사항 안내 영상물이 나오고 있다. /뉴시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정부가 내놓은 인공지능(AI)·스마트기기 부정행위 방지 대책에 학교 현장이 술렁이고 있다. 수험생들은 안경을 새로 맞추거나 단추 없는 옷을 고르는 등 막바지 준비에 분주한 모습이고, 교육부가 개인 필기구 휴대까지 제한하면서 시험장 운영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수능 직후 논술·면접을 치르는 대학들 역시 감독 인력을 늘리고 보안 검색을 강화하는 등 부정행위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범정부 차원의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18일에도 수험생의 시험장 반입 가능 물품을 추가로 제한했다.

수험생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컴퓨터용 사인펜과 흰색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도 개인 휴대가 가능했지만, 부정행위에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제외했다. 교육부는 이날 휴대가 금지된 필기구를 구매해 각 시도로 배송했다. 필기구는 시험장에서 일괄 지급하며, 변경된 내용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모든 수험생에게 개별 문자로 안내했다.

서울시교육청도 지침에 따라 시험장 준비에 들어갔다. 교육청 관계자는 "옷에 단추가 있는 수험생에게는 1교시 전 필기구를 배부할 때 스티커를 함께 나눠주고, 수험생이 직접 부착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스티커가 떨어지더라도 부정행위로 처리하지 않고, 감독관이 다시 지급해 부착하도록 안내한다"고 전했다. 추가 배치되는 복도 감독관은 교육청 본청과 직속기관 직원들로 구성하고, 이날 오후 화상 연수를 진행했다.

후속 지침이 잇따르며 수험생들의 부담은 커지고 있다. 일반 안경이 스마트안경으로 오인돼 불필요한 검사나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평소 쓰던 안경까지 바꾸는 상황이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수험생 강모(18) 군도 안경을 새로 맞췄다. 강 군은 "평소 쓰던 안경이 AI 스마트안경과 외형이 비슷하다는 말에 불필요한 의심을 피하려고 안경부터 다시 맞췄다"고 말했다. 이어 "시험을 앞두고 갑자기 여러 대책을 쏟아내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혼란스럽다"며 "시험 자체에만 집중하기 어려운 분위기"라고 토로했다.

수능 직후부터 일정이 이어지는 대학별 고사에도 비상이 걸렸다. 오는 21일 수능 이후 가장 먼저 논술고사를 치르는 고려대는 자체 AI 부정행위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고려대 관계자는 "스마트안경뿐 아니라 통신·촬영용 초소형 기기의 반입과 소지도 금지하고 있으며, 적발 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불합격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만 감독 인력 규모와 구체적인 단속 기준, 전파·금속탐지기 도입 여부 등은 부정행위에 악용될 가능성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았다. 대학 측은 전형의 충분성과 효과성을 검토해 적정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논술전형에서 5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한 삼육대도 오는 23일 논술고사를 앞두고 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삼육대 관계자는 "정규 감독관 외에 고사실마다 AI 부정행위 전담 감독관 2명을 추가 배치해 고사 기간 부정행위 여부만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라며 "고사장 건물 출입 시 금속탐지기로 전수조사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필기구와 물병, 시계, 모자 등 개인 물품의 사용과 착용도 금지하고, 대학에서 지급하는 필기구만 사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대학 차원의 제재 수위도 높아질 전망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전국 197개 회원대학과 AI·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입시 부정행위에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 수능에서 AI나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로 적발되면 퇴학 등 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대교협 관계자는 "최대 10년간 해당 대학뿐 아니라 다른 회원대학에도 입학할 수 없도록 법령과 학칙 개정을 협의할 예정"이라며 "논술 등 대학별고사에서 같은 유형의 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도 동일한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2027학년도 수능은 19일 전국 85개 시험지구·1312개 시험장에서 실시한다. 응시자는 총 55만1864명으로, 수험생들을 18일 예비소집에 참석해 수험표를 받고 시험장과 유의 사항을 확인했다.

/김수정 기자
kcrystal@metroseoul.co.kr

# 당정, AI 커닝 때 '수능 10년 응시제한' 법 개정 추진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당정협의'**
**감독인력 약 8400명 추가 배치**
**부정행위자 형사처벌 등 엄정 대응**
**빅테크 정보 제출 의무화 검토도**



한성숙 국무총리가 1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7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시스

당정이 18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감독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안경 등을 전수조사 하는 등 부정행위 사전 예방 대책과 동시에, 적발 시 응시자격 박탈 기간을 대폭 확대하고 고소·고발 등 사후 처벌에도 강력히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7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당정협의'에서 수능 당일 스마트 안경 등 첨단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점검을 진행하고 부정행위와 관련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도록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스마트 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수험장 반입에 대비해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가방을 수험장 밖 복도에 보관하고 감독인력 약 8400명을 추가로 배치해 시험장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긴급재난문자를 활용해 미제출 스마트폰을 탐지하고, 빅테크 AI 기업 및 통신사 공조 등을 통해 부정행위 적발과 사후 조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제도를 개선해 부정행위 적발 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당은 수능 부정행위 적발시 응시 자격 박탈 기간은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올해 수능부터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고등교육법 개정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한 대학 재학생이 수능 부정행위를 저질러 적발될 경우 퇴학시키고 재입학을 제한하는 내용을 법제화하는 입법적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당정은 부정행위자에 대한 고소, 고발 등 형사처벌과 입학 취소를 추진하고 부정행위 신고 센터를 운영함과 동시에 선동과 허위정보에 대응하는 등 시험 종료 이후에도 엄정히 대응하기로 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정부가 답안 요구 사례를 인공지능 회사에 요청하는 경우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제화도 적극 검토해 추진할 것"이라며 "또한, 국가 시험에 대한 공정성 확보가 우리 공동체의 신뢰 회복을 위한 기초다. 일회성 대책에 그치지 않고 정부 차원 수능 부정행위 대응과 전체 국가시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TF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김정호 의원이 위원장, 고민정 의원이 간사를 맡는 AI 활용 부정시험 근절 대책 특별위원회를 꾸려 대응할 예정이다. 임 실장은 정보 제출 의무화 대상이 되는 인공지능 기업을 특정하지 않았지만 "통상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4개사"라고 했다.

부정행위 적발 시 응시자격박탈 제한 등 처벌을 올해 수능부터 소급 적용하는 것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법률에 근거 규정을 마련해서 대상을 구체화하면 위헌 소지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검토 중"이라며 "재수생과 반수생이 많은데, 수능 1년 응시제한이 실효성이 없어서 이 학생들 경우 (적발 시) 현재 학교에 돌아가서 다니는 것도 (대학교) 학칙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학칙에 따라서 징계 조치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민석 대표는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시험 부정에 관한 '원스트라이크' 원칙을 관철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불필요한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허위 조작 정보의 생산과 유포에도 엄정 대응하겠다"며 "당정은 수험생 여러분이 안심하고 시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AI 부정행위 원천 차단과 수능의 공정성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부정행위 방지 절차의 일환으로 재난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모든 국민이 함께 받게 되는 상황에서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공정한 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공부에 매진해 온 학생들이 공정하게 평가받고, 노력에 합당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 사이버보안 예산 증액한다지만… AI 공격 대비 실효성엔 '의문'

**과기정통부, 예산 877억 증액 추진**
**보안 솔루션 구독 지원 등 예방 초점**
**고도화하는 사이버 공격 대응엔 글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내년도 사이버보안 예산을 약 877억원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증액안 대부분이 사전 예방과 피해 지원에 쏠려 있어 기업의 실질적인 사이버 공격 대응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8일 〈메트로경제신문〉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약 877억원 추가로 늘리는 증액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증액안이 모두 반영되면 내년 민간 분야 정보보호 예산은 6108억원으로 올해(3634억원)보다 1.7배 가까이 늘어난다.

중소기업 보안 지원(500억원), 사이버대피소(109억2000만원), 양자내성암호 전환(100억원), 취약점관리센터(90억9000만원), 침해사고 대응 인프라 개선(60억원), 기반시설 점검(14억원), 취약점 신고포상제(3억원) 7개 사업이 포함된다.

다만 사업 구성을 보면 AI를 활용한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공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보안 지원은 AI 보안 솔루션이나 구독료, 보안 장비 도입 등을 돕는 지원 사업에 속한다.

취약점관리센터 역시 보안 취약점을 미리 찾아내 기업에 패치 적용을 지원하는 등 예방에 초점이 맞춰졌다. 여기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운영하는 사이버 취약점 신고포상제와 국가정보원이 총괄하는 양자내성암호(PQC) 전환 사업 등을 제외하더라도 대부분이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과 피해 지원에 집중된 예산이다.

그나마 디도스(DDoS) 공격을 우회시켜 정상 서비스를 유지해주는 사이버대피소가 직접적으로 공격을 차단하는 사업인데, 이마저도 전체 증액 예산 중 비중이 약 12%에 그친다.

최근 보안업계는 자율형 공격 시스템의 등장으로 위기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AI 에이전트가 취약점을 찾아 스스로 침투 경로를 설계하고 공격까지 실행하면서다.

실제로 최근 구글 위협 인텔리전스 그룹(GTIG)의 AI 위협 보고서에 따르면, AI 에이전트 군단이 역할 분담을 통해 취약점을 찾고 공격까지 실행하는 사례가 올해 하반기부터 공식 발견되기 시작했다.

이번 예산 증액은 범정부 차원에서 AI 공격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조치지만, 보안 솔루션 보급과 취약점 점검만으로는 고도화하는 사이버 공격에 대응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조민선 기자 msjo@

단합

시작은 하나의 에너지였다

여기에 에너지, 에너지, 에너지

또 다른 에너지가 모여

역사에 남을 길이 열리고 있다

**힘이 모이면 길이 된다**




SK 이노베이션

SK 온 SK 에너지 SK 지오센트릭 SK 인천석유화학 SK 아이이테크놀로지 SK 어스온

#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2029년부터 통합교육"

**육군사관학교, 충청권으로 이전**
**군별 특성 유지하는 절충안 마련**
**육·해·공 연계 교육체계로 개편**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당정이 18일 대전광역시 자운대 일대에 미래 정예 장교를 양성할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고, 오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생도를 선발하는 등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김병주 국방위 여당 간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급변하는 안보 환경과 인구 절벽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군의 첨단화와 과학화를 선도할 국방 인재 양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란 점을 깊이 공감했다"고 말했다.

김 간사는 "미래전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국군사관학교 창설 목표로 제시하고 대전 자운대에 통합교육을 위한 사관학교 본교와 과학기술 전략형 석사 교육을 위한 대학원을 설립할 것"이라며 "각군 교육을 위해 육해공군 캠퍼스를 구성해 각군 특성과 합동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이전하고 해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는 기존 위치를 활용해 육해공군 학부 개념으로 할 예정"이라며 "교육 체계는 입학 직후 1학년과 졸업 직전 4학년을 함께 교육하는 체계로 개편해 통합교육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2~3학년 교육과 군사훈련은 각군 주도로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간사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이 없도록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국군사관학교 선발은 각 군별로 실시하고 새 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할 것"이라며 "마지막으로 국군사관학교 본교가 창설되는 자운대에 상주하는 기존 군부대의 이전은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맞이할 미래 전쟁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완전히 차원이 다른 복합적이고 다변화된 양상을 띨 것"이라며 "무인 자율 무기와 AI(인공지능) 기반 무기체계가 전면 도입되는 새로운 전장 환경에서는 기존의 지식과 방식만으로는 결코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강 장관은 "지금 우리 군은 도약과 도태의 기로에 서 있다. 우리 앞에 놓인 낭떠러지는 과거의 방식에 머무를 것인지,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인지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과감하게 뛰어오르지 않으면 결국 추락할 수밖에 없다. 이제는 기존의 틀에서 탈피해 미래를 향해 새롭게 도약해야 할 때다. 이를 위해 미래 정예 장교의 인재상으로부터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군 사관학교의 창설은 우리 군의 미래를 여는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고 자신했다.

한편, 국방부는 대전 자운대에 육해공군사관학교를 완전히 통합해 4년 동안 전면 통합 교육을 받는 단일 4년제 교육기관을 설립하고자 했으나, 군 안팎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며 1학년 때 통합교육을 받고 2~3학년 때 각 군 사관학교로 흩어져 교육을 받다가 4학년 때 다시 통합교육을 받는 방식을 채택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 與, 반도체 공사대금 '지급기한 단축' 협약

세금계산서 발행 10일 내 현금 지급
"조기 지급 관행, 현장 정착하도록 관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대기업-원도급-하도급사 대금지급기한 단축을 위한 상생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반도체 공사 발주처와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 공사대금을 세금계산서 발행 후 10일 내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대금 지급기한 단축'에 큰 진전을 이뤘다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 품격민생위원회와 을지로위원회는 18일 '반도체 대기업 원도급, 하도급사 대금 지급기한 단축을 위한 상생협약'을 개최했다.

이 자리엔 한병도 원내대표, 민병덕 을지로위원장, 이용선 품격민생위 부위원장 이건태·이강일·김남근·정진욱 의원 등 민주당 관계자, 박동일 산업통상부 차관,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 신동열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등 정부 관계자, 지현기 삼성전자 부사장, 예병용 삼성물산 부사장, 함동균 SK하이닉스 부사장, 장문혁 SK에코플랜트 부사장 등 기업관계자,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허용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등이 참석해 손을 맞잡았다.

반도체 건설 현장에선 대기업이 원도급사에 공사대금을 90일 만기 어음으로 지급하고, 원도급사는 다시 하도급사에 60일 만기 어음으로 지급해왔다.

현행 하도급법상 도급사는 대금을 법정 기한인 60일 내에 지급해야 한다. 반도체 공장 공사 등에 참여한 협력업체는 임금과 자재 대금을 먼저 지불하고 도급사에 기성대금을 청구한 뒤 실제 대금 지급까지 80일 이상을 기다려야 해 협력업체의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이번 상생협약은 반도체 국내 양대 대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하도급사가 세금계산서 발행 후 10일 이내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면서 열리게 됐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특히 SK하이닉스는 공사 대금에 대해서 올 10월 계약금부터 공사 선급금 10%를 지급하고 있다"며 "굉장히 큰 진전"이라고 치켜세웠다.

민병덕 을지로위원장은 "K자 양극화는 같은 반도체 산업 내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반도체 공장을 짓는 한 현장에서 어음 기간이 90일에서 60일로 줄었다. 그래도 258개 협력업체는 임금과 자재값을 먼저 현금으로 치르고 대금을 받기까지 80일을 버텨야 했다"면서 "발주처는 호황인데 협력업체엔 외상과 이자만 늘었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민 위원장은 "하도급법엔 (지급 상한이) 60일이다. 이 말은 가능한 60일 내에 빨리 대금을 지급하란 것"이라며 "(그런데) 60일이 현장에선 기준이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오늘 상생 협약에서 발주처와 원도급사 모두 대금을 현금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후 10일 안에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며 "정말 중요한 결단이다. 호황의 온기가 맨 아래 현장까지 닿도록 우리 대한민국의 오랜 관행을 바꾸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 위원장은 "오늘의 협약이 새로운 관행이 되길 바란다"며 "그 관행이 잘 지켜지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

# 與 민주유공자법 강행에 국힘 필버 예고

주택3법·방송3법도 상정 시기 고심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와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합의되지 않은 법안을 강행할 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8일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회의 논의 사항을 알리며 "19일 본회의가 열린다. 민주유공자법은 상정을 해서 처리할 계획을 잡고 있다"며 "내일 본회의 부의 법안이 몇개가 될 지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유공자법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처럼 별도의 특별법이 없는 다른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가족도 유공자로 예우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주택공급활성화 3법(도시정비법·도시재정비촉진법·용산공원특별법)'과 방송 관련법 개정안도 이번 본회의에 상정되냐는 질문에 "원내에서 논의하고 있는데, 주택3법과 방송3법을 이번주에 올릴 지 다음에 올릴 지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태홍 기자

# 추경호 무죄에 다시 불붙은 내란 공방

'계엄 해제 표결 방해' 무죄 판결
與 김민석 "법원의 퇴행적 판결"
野 장동혁 "정의와 상식의 승리"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뉴시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여야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추 시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은 바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법원은 추경호의 내란 가담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이 내란과 국정농단 피의자들에게 잇달아 무죄와 감형을 선고하고 있다"며 "국민이 애써 지킨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법원이 앞장서서 다시 허무는 형국이다. 법원의 퇴행적 인식과 판결은 결국 국민과 역사의 심판대에서 다시 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추 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소통하고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나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계엄 해제를 가로막은 원내대표가 무죄라면, 그날 밤 목숨 걸고 국회를 지킨 국민은 무엇인가"라며 "특검은 즉각 항소해야 한다. 상급심은 그날 밤 국회에서 벌어진 헌정파괴 범죄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 단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추 시장의 무죄 선고 직후 여러 창구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SNS에 "정의와 상식의 승리"라며 특검을 향해 "항소할 생각도 하지 말라"고 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특검의 공소사실이 정치적 억측에 불과했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무리한 표적 수사와 억지 기소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특검이 추 시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데 대해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원의 통상적인 의정활동을 중대 범죄로 둔갑시키려던 무리수는 결국 법의 엄정한 심판 앞에 무너졌다"며 "이로써 정권이 휘두른 '내란 몰이'의 칼날은 정당성을 잃었다. 정권의 '사냥개' 노릇을 자처하며 무리한 기소로 국론을 분열시킨 '내란 특검'은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추 시장은 무죄 선고 뒤 기자들과 만나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해 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대구 시정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정권은 정치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민생을 챙기는 데 최우선으로 나서길 바란다"고 했다.

/박경수 기자 gws0325@

Samsung Financial Networks

삼성화재










좋은 일도
늘어난다는 것




가족 2인 이상 결합 시
보험료 5% 할인 (특약)

QR코드를 찍고
상담받아보세요




내 삶에 맞춰 나에게 맞게
보험을 만드는
맞춤 모듈 시스템 보험

THE FIT
삼성화재 THE FIT

예금보험공사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1억원

이 상품은 2인 이상 가족이 같은 'THE FIT'보험을 가입할 경우 가족결합 영업보험료 할인 특약을 제공합니다. 가족범위는 피보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한합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 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삼성화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 193727호 (2026.11.09~2027.11.08)

# 은마 이주 채비에 전셋값 ↑… 시기 분산·임대 확보 동반돼야

**은마아파트·개포주공 6, 7단지 총 6384가구 내년 재건축 이주**
**6억 전세, 7억 올려도 바로 계약**
**일부 매물 내놓는 시기 늦추기도**

#"강남에서 저렴하게 30평대 아파트에 전세로 살 수 있는 마지막 선택지가 은마였어요."(김태규 대치이화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대치동 빌라를 전세로 내놓으려던 집주인도 시기를 내년으로 미뤘어요. 은마 이주가 시작되길 기다리는 거죠."(대치동 B중개사)


서울 은마아파트 모습 /뉴시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내년 재건축 이주를 추진하면서 기존 세입자들의 주거지 선택에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은마는 강남권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증금으로 30평대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는 선택지 중 하나였지만, 주변 아파트는 물론 빌라 전셋값까지 높아지면서 대체 주거지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치동에서는 기존 6억원 선이던 방 세 개짜리 빌라가 최근 7억원에도 계약되고 있다.

1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강남구에서는 은마아파트와 개포주공6·7단지의 재건축 이주가 내년 시작될 예정이다. 은마아파트는 4424가구, 개포주공6·7단지는 1960가구로 두 단지를 합하면 6384가구에 달한다.

이주를 앞둔 은마아파트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전세 계약이 이뤄진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6.79㎡는 지난 6월 7억원에 전세 계약됐지만 9월에는 4억원에 계약된 사례가 나왔다. 김 대표는 "재건축 이주가 가까워지면서 장기간 거주하기 어려운 점도 임대차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 재건축 이주 수요로 주변 전세 꿈틀**

대치동 주변 아파트에서는 최근에도 높은 가격에 전세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자료를 토대로 집계한 결과,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면적 84.97㎡는 지난 10월 18억6000만원에 계약된 데 이어 11월에는 20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롯데캐슬리베' 전용 121.09㎡도 지난 8월 13억8500만원에 계약된 사례가 있었지만 10월에는 18억원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다.

주변 빌라에서도 전세가격 상승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김 대표는 "기존에 전세 6억원 선이던 방 세 개짜리 빌라는 지금 매물이 거의 없고, 7억원에 나와도 계약이 바로 이뤄지고 있다"며 "일부 집주인들은 앞으로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보고 8억원까지 전세금을 높여 매물을 내놓으려는 상황"이라고 했다.

재건축 이주가 본격화하기 전부터 임대인들이 추가적인 전세 수요를 예상해 계약을 미루는 사례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공인중개사는 "은마 세입자들이 계약 만료 시점에 맞춰 주변 주택을 알아보고 있지만, 일부 빌라 소유주들은 향후 가격 상승을 기대하며 보증금을 높이거나 매물을 내놓는 시기를 늦추고 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세입자들은 대치동에 남기를 원하지만, 주거비 부담이 큰 가정은 개포동이나 경기 성남시 분당까지 알아보고 있다"며 "자녀를 대치동 학원에 차로 데려다주는 방안까지 고려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은마아파트 재건축 이주에 따른 전세 수요가 강남을 넘어 경기까지 확산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강남권 재건축 이주에 따른 임대차시장 부담은 서울 전체 정비사업 일정과도 맞물려 있다. 서울시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서울 207개 정비사업장에서 총 17만9310가구의 이주가 예정돼 있다. 이 가운데 2028년부터 2030년까지 3년간 이주 예정 물량은 14만1020가구로 전체의 약 78.6%를 차지한다.

**◆ "강남 이주수요로 주변 임대차 영향"**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대치동의 이주 수요가 개포동과 잠실을 넘어 경기 분당·평촌 등 수도권 남부 지역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며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도 올해 약 2만5000가구에서 1만8000가구 수준으로 줄어드는 만큼 주변 임대차시장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원갑 KB 부동산 수석전문위원도 강남 인접 지역의 임대차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박 위원은 "전세시장은 국지적인 수요의 영향을 크게 받는 만큼 강남·서초·송파·강동과 경기 성남 등 인접 지역의 중저가 아파트와 다세대·다가구주택에 영향이 집중될 것"이라며 "다만 경기·인천 전역으로 확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고가 아파트에서는 전세보다 월세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대규모 정비사업 이주 수요가 특정 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사업장별 이주 일정을 점검하고 시기를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주 시기를 분산하는 것만으로는 전세 수요 증가에 따른 부담을 해소하기 어려운 만큼 대체 주거지 확보를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함 랩장은 "이주 시기 조정은 분명 필요하지만 이주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큰 지역과 대규모 사업장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시기 조정에 그치지 않고 매입임대·건설임대·비아파트 임대주택 등 이주 수요를 직접 흡수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 가상자산 거래소 '매출 위기'… 규제완화 논의 시급

**매출의 99% 거래수수료 의존 구조**
**두나무·빗썸·코인원, 3분기 순손실**
**업계, 수수료 인하·면제 등 출혈경쟁**
**"디지털자산 기본법 조속 입법 절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매출 위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량 감소에 따른 수수료 매출 저하로 국내 원화거래소들이 3분기 실적에서 일제히 적자를 기록했다. 국제 표준에 뒤처진 규제가 국내 거래소의 매출 개선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과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신속한 입법과 후속 논의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올해 3분기 186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해 전 분기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했다. 점유율 2위 거래소 빗썸은 3분기 15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면서 2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점유율 3위 코인원은 156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최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실적이 부진한 것은 올 상반기부터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거래량도 줄어 들어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수료 수입이 줄어서다.

가상자산 시황정보 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국내 5대 원화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디지털엑스·고팍스)의 합산 거래대금은 1332억달러로 집계됐다. 작년 3분기의 4222억달러와 비교해 68.5% 급감했다. 특히 올해 들어서도 매출 감소가 지속되면서, 1분기 2182만 달러 수준이었던 거래대금이 3분기에는 약 39% 가량 감소했다.

국내 거래소들은 매출의 약 99%를 개인간 거래 수수료에 의존한다. 해외 거래소와 달리 파생상품의 취급이 어렵고, 가상자산 거래 시 실명계좌를 요구하는 만큼 법인 투자자의 거래도 불가해서다. 업비트·빗썸 등 일부 거래소가 '코인 렌딩(코인 빌리기)' 등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안팎이다.

가상자산 거래량 감소가 투자자 이탈로 이어지는 가운데, 투자자 유치를 위한 거래소 간 수수료 경쟁도 본격화했다. 국내 거래소들은 거래대금의 0.05~0.2% 수준에서 수수료를 부과하는데, 최근에는 주요 종목의 수수료를 인하하고 스테이블코인 기반 거래의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출혈경쟁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영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국제 표준과 비교해 과도한 국내 규제 수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해 시장 유동성을 확대하고, 선물이나 옵션 등 파생상품 취급을 허용해 수익 다각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시장 규제의 토대가 될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입법 논의가 늦어지면서 규제 완화 등 후속 논의도 함께 지연되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이달 안에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당이 법안을 최초 발의한 지난해 2025년 6월 이후 약 1년 5개월 만이다. 대주주 지분율과 은행 컨소시엄 등 쟁점이 남아있는 만큼 정부안 공개 이후에도 논의가 지속될 전망이지만, 여당은 내년 1월 초까지 입법 수순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업계에서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입법 이후 후속 논의가 빠르게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가상자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본법의 입법이 늦어지면서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의 경쟁력 격차가 커진 상황이다"라며 "국내 거래소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투자자의 해외 이탈을 막기 위해선 국제 표준에 맞는 합리적인 수준의 규제 완화가 논의돼야 "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 하나은행, 경영인 120명 초청 'CEO 포럼'

15년 축적 노하우 절세전략 소개

하나은행은 지난 17일 서울 중구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에서 기업 고객 경영인 120여 명을 초청해 '제1회 하나 CEO 포럼'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성공적인 가업승계 방안을 모색하고, 경영인과 가족의 종합적인 자산관리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나은행은 지난 1년간 전국 각지에서 '하나 택스 투어'를 진행하며 기업 고객들에게 세무 및 가업승계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 이번 포럼은 기존 세무·승계 중심의 지원을 경영인과 가족의 종합자산관리 영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15년간 축적한 가업승계 사례를 바탕으로 절세 전략과 주식 신탁을 활용한 승계 방안 등이 소개됐다. 특히 안정적인 경영권 유지와 다음 세대로의 원활한 자산 이전을 위한 자산관리 방안을 공유했다.

또 복순도가 김민규 대표가 실제 가업승계 경험을 소개했으며, 역술가 박성준의 특별 강연도 진행됐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기업을 성장시키는 것만큼이나 그 성과를 안전하게 지키고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준비 역시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축적된 전문성과 자산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기업과 가문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포럼에 참석한 김진우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 부행장이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다. /하나은행

/나유리 기자 yul115@

# 산업은행-한국투자, KDB생명 매각 결렬

재매각 추진여부 등 향후계획 미정

한국산업은행이 한국투자금융지주와 진행해 온 KDB생명 매각 협상을 종료했다. 양측이 매각 조건에 대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다.

산업은행은 18일 한국투자금융지주와 KDB생명 매각을 위한 매매계약 협상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지난 8월 13일부터 한국투자금융지주와 KDB생명 매각을 위한 협상을 진행해 왔다.

양측은 KDB생명 매각 성사를 위해 협의를 이어왔으나 매각 조건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최종적으로 협상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산업은행은 향후 재매각 추진 여부 등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번 매각 과정 전반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다양한 대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KDB생명 경영정상화 작업은 매각 협상 종료와 관계없이 지속한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3월 KDB생명을 자회사로 편입한 이후 추진해 온 경영정상화 작업을 차질 없이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유리 기자

# AI 서버 부품 품귀에 몸값 '쑥'… 삼성전기·LG이노텍 증설 속도

**MLCC 납기 32주서 40주로 늘어**
**빅테크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 여파**
**내년 MLCC 수주액 3.27조 달해**
**반도체기판 생산시설 확충 속도**
**북미 고객사 확보·장기계약 추진**


삼성전기 수원사업장 전경. /삼성전기

인공지능(AI) 서버용 부품의 공급 부족이 심화하면서 국내 전자부품업계가 고부가 제품 생산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적층세라믹커패시터(MLCC)의 납기가 길어지는 가운데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은 고성능 부품 수요에 대응해 생산시설 확충과 고객사 확보에 나섰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가 최근 집계한 MLCC 리드타임은 지난 9월 말 32주에서 이달 중순 40주로 늘었다. 리드타임은 제품 주문부터 납품까지 걸리는 기간으로 통상적인 12주 수준을 크게 웃돈다.

MLCC 공급난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와 맞물려 있다. AI 서버는 일반 서버보다 많은 MLCC를 사용하고 고온·고전압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해 고용량·고신뢰성 제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AI 서버용 MLCC 수요 증가에 대응해 고부가 제품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 3분기 분기보고서에 기재된 MLCC 평균판매가격은 지난 2025년 연간 평균 대비 21.4% 상승했다. 주요 원재료인 페이스트·파우더의 평균 매입단가도 8.3% 올랐다.

수주도 확대되고 있다. 대신증권이 집계한 삼성전기의 오는 2027년 생산 예정 MLCC 수주액은 3조2700억원으로 올해 예상 MLCC 매출의 50.3%에 해당한다. 대신증권은 오는 2027년 MLCC 매출이 올해보다 42.7% 증가한 9조3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 업체들이 고부가 제품 생산 비중을 높이면서 기존 IT·전장용 MLCC의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 가능성도 제기된다.

삼성전기는 반도체 패키지기판인 플립칩 볼그리드어레이(FC-BGA) 사업에서도 생산능력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9월 세종과 베트남 생산시설 확충에 총 6조7800억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AI 반도체의 고성능화에 따라 대면적·고다층 기판 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LG이노텍도 반도체 패키지기판 사업 확대에 나섰다. 올해 3분기까지 패키지솔루션사업부 매출은 1조417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2%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69.2% 늘어난 1357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률도 6.5%에서 9.6%로 상승했다.

반도체기판 생산시설은 높은 가동률을 유지하고 있다. LG이노텍의 올해 3분기 누적 반도체기판 평균 가동률은 94.4%로 지난 2025년 연간 평균인 81%를 웃돌았다. 회사는 기존 통신용 기판 공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AI 가속기용 FC-BGA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LG이노텍은 현재 PC 중앙처리장치(CPU)용 FC-BGA를 공급하고 있으며 오는 2027년 AI 가속기용 제품 양산을 목표로 고객사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한 변의 길이가 100㎜를 넘는 대면적 AI 가속기용 FC-BGA를 공개했다. 오는 2028년까지 AI 가속기와 서버용 고다층·대면적 기판 시장에 단계적으로 진출할 계획이다.

고객사 확보에 맞춘 추가 투자도 검토하고 있다. SK증권은 LG이노텍이 북미 반도체 기업 3곳과 장기공급계약(LTA) 협상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분석했다. LG이노텍은 지난 6월 베트남 하이퐁 반도체 기판 공장 증설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오는 2027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 구미 사업장은 고부가 제품 생산과 신기술 개발 거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AI 서버용 부품은 고객사별 요구 사양이 달라 공급업체 선정과 양산 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주요 고객사와 장기공급계약을 확보하는 것이 향후 생산능력 확대와 사업 성장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 반도체 공장에도 '휴머노이드' 투입 추진

**보스턴다이나믹스·글로벌파운드리 협력**
**내년 초 아틀라스 현장 테스트 착수**
**美·獨·싱가포르에 스팟 확대 배치**


글로벌파운드리에 투입될 보스턴다이나믹스 아틀라스와 스팟. /보스턴다이나믹스

현대차그룹 로봇 전문 계열사 보스턴다이나믹스가 자동차에 이어 반도체 제조 현장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사족보행 로봇의 적용도 확대한다. 보스턴다이나믹스는 글로벌 반도체 제조기업 글로벌파운드리와 협력해 아틀라스 현장 테스트와 스팟 확대 배치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스팟은 네 발로 이동하며 산업 현장의 설비를 점검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사족보행 로봇이다.

글로벌파운드리는 자동차 산업 외 분야에서 아틀라스를 검증하는 첫 고객이다. 보스턴다이나믹스는 2027년 초부터 글로벌파운드리 주요 사업장에서 반도체 제조에 활용할 수 있는 작업을 발굴한다. 현장 요구 사항과 도입 조건을 확인하고 특정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초기 테스트와 학습도 진행할 예정이다.

휴머노이드의 적용 가능성을 살피는 동시에 기존 검사 로봇의 활용 범위도 넓힌다. 글로벌파운드리는 미국 뉴욕·버몬트와 독일 드레스덴, 싱가포르 등 반도체 생산시설에 스팟을 확대 배치한다. 미국 버몬트 공장에서는 이미 4년 이상 스팟을 운영해 왔다.

싱가포르 사업장의 스팟 2대는 지난 4월부터 생산시설 아래 부대설비 공간인 '서브팹'에서 약 900㎞를 이동하며 9만 건 이상의 검사를 수행했다. 임무 성공률은 99%를 기록했다. 글로벌파운드리는 스팟의 시각 검사 기능을 활용해 검사 업무를 현재의 두 배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보스턴다이나믹스는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내 로보틱스 메타플랜트 응용 센터에서도 아틀라스가 자동차 제조에 필요한 작업을 학습하고 검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프라딥 싱 글로벌파운드리 최고제조책임자는 "스팟은 수천 개의 검사 지점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생산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예측 중심의 유지보수로 전환하는 데 기여했다"며 "스팟의 적용 확대와 아틀라스 테스트는 AI 기반 제조로 나아가기 위한 다음 단계"라고 말했다. /이승혁 기자 sh95@

# 삼성SDI, 배터리 앞세워 북미 AI 시장 공략

**북미 최대 에너지산업 전시회 참가**
**ESS·UPS·BBU 존 구성해 선보여**

삼성SDI가 북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시장을 겨냥한 배터리 라인업을 내놓고 현지 공략에 나섰다. 북미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요가 늘면서 배터리의 품질과 안전성이 중요해진 만큼, 기술력과 현지 생산 역량을 앞세워 시장 입지를 넓히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SDI는 17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한 'RE+(Renewable Energy Plus) 2026'에 참가해 AI 데이터센터(AIDC)에 최적화된 차세대 배터리 솔루션을 공개했다고 18일 밝혔다.

RE+는 북미 최대 에너지산업 전시회로, 올해는 글로벌 기업 1300여곳이 참가했다. 삼성SDI 전시관은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 메인홀에 에너지저장장치(ESS)·무정전전원장치(UPS)·배터리백업유닛(BBU) 등 3개 전시 존으로 구성됐다. 각 전시 존에서는 'AI의 상상, 배터리가 현실로(AI Thinks, Battery Enables)'라는 슬로건 아래 AI 시대를 겨냥한 배터리 라인업과 기술을 선보였다.

ESS 존에는 미국 현지에서 생산한 삼원계(NCA)·리튬인산철(LFP) 각형 배터리를 탑재한 일체형 ESS 솔루션 '삼성배터리박스(SBB)'가 전시됐다. 특히 SBB 2.0 모형은 정면과 측면 도어를 열어 내부의 첨단 안전장치를 직접 볼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초 국내 최대 배터리 전시회 '인터배터리 2026'에서 공개한 각형 배터리 브랜드 '프리즘스택(PrismStack)'도 북미 시장에 처음 선보였다.

UPS 존에는 UPS용 각형 배터리 솔루션 'U8A3'와 여기에 탑재된 리튬망간산화물(LMO) 각형 배터리 셀이 전시됐다. U8A3는 지난 7월 옥내 대형 화재 테스트(Indoor LSFT)에서 세계 최초로 모든 기준을 충족했다.

BBU 존에서는 정전이나 급격한 전력 변동이 발생할 때 서버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BBU용 배터리 라인업을 소개했다. /원관희 기자 wkh@

현대로템

## 서산 제2시험동 준공

항공우주 엔진 개발 역량 강화

현대로템이 극초음속 비행체와 재사용 우주발사체의 핵심 추진기술 개발을 위해 엔진 연구·시험 역량을 강화한다. 현대로템은 지난 17일 충남 서산 항공우주추진시험센터에서 제2시험동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제2시험동은 내년부터 기존 제1시험동과 함께 극초음속 엔진과 재사용 발사체용 35톤·10톤급 메탄엔진 및 주요 구성품 개발에 활용된다. 엔진 연소시험을 위한 추진시험설비와 구성품 성능시험실, 안전관리 설비 등을 갖췄다. 서산 시험센터는 1998년 약 7000평 규모로 조성됐다.

/유혜온 기자 dhaledhale@

## SK이노, 차세대 항공유 핵심기술 확보

고효율 수전해 촉매 독자 개발

SK이노베이션이 차세대 지속가능항공유(e-SAF) 사업의 기술 경쟁력을 한층 강화했다. e-SAF의 핵심 원료인 그린수소 생산 효율을 높이는 촉매 기술까지 확보하면서 원료부터 정제·전환에 이르는 제조 전 과정의 특허 기술을 갖추게 됐다.

SK이노베이션 환경과학기술원은 독자 개발한 고효율 수전해 촉매 기술이 영국 왕립화학회(RSC)가 발행하는 국제학술지 '저널 오브 머티리얼즈 케미스트리 에이(Journal of Materials Chemistry A)'에 게재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기술은 재생에너지의 전력 변동으로 수전해 촉매 성능이 떨어지는 문제를 개선했다. 수전해는 물을 전기분해해 수소를 생산하는 공정으로, 촉매는 물이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는 반응을 촉진해 전력 소모를 줄이고 수소 생산 효율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기반 수전해 시스템은 날씨와 시간대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지는 탓에 전력이 불규칙하게 공급돼, 촉매 구조가 무너지거나 수소 생산 효율과 촉매 수명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었다.

연구진은 니켈-철-텅스텐(Ni-Fe-W) 기반 촉매에 리튬(Li)을 미량 첨가(도핑)해 이를 해결했다. 리튬이 촉매 내부의 산소 반응성을 극대화해 수소 생산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촉매 구조가 무너지는 현상을 막았다.

/원관희 기자

## HD현대로보틱스, 1톤급 초대형 로봇 첫 공급

국내 최초 자체 개발·상용화

HD현대로보틱스가 그동안 자동화가 어려웠던 고중량 작업을 겨냥해 초대형 로봇 공급에 나섰다. 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한 1톤급 로봇으로 대형 부품의 운반과 설비 투입을 자동화해 작업자의 안전사고 위험을 줄인다. HD현대로보틱스는 경기 안산 한국R&D 본사에서 초대형 로봇 'HDT1000-33'의 첫 판매 기념행사를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HDT1000-33은 최대 가반하중이 1톤인 6축 다관절 로봇이다. 가반하중은 로봇이 들어 올릴 수 있는 최대 무게를 뜻한다. 초도 물량은 건설기계용 대형 엔진 생산 공정에 투입돼 실린더 엔진 블록을 가공 설비에 넣고 가공이 끝난 제품을 다음 공정으로 운반할 예정이다.

HD현대로보틱스는 제조 현장에서 대형 모듈화 생산이 확대되면서 크고 무거운 부품을 한 번에 다루는 수요가 늘자 2024년 2월 1톤급 초대형 로봇 개발에 착수했다. 단순 이송뿐 아니라 가공 설비에 부품을 투입하고 가공이 끝나면 다음 공정으로 옮기는 복합 작업까지 수행하도록 설계했다.

고중량 부품을 가공 설비에 정확히 투입할 수 있도록 정밀 동작 제어 기술도 적용했다. HDT1000-33은 수천 회 이동을 반복해도 목표 위치와의 오차를 0.1㎜ 이내로 유지한다.

/원관희 기자

포스코그룹

## 中 CATL와 3년간 리튬 장기공급 계약

포스코그룹이 세계 최대 배터리 기업인 중국 CATL을 장기 고객사로 확보하며 글로벌 리튬 판매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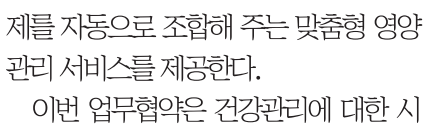
포스코그룹은 중국CATL과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전기차 배터리용 리튬을 공급하는 장기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계약에 따른 공급이 진행 중이다.

CATL은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약 40%를 점유하는 기업으로, 중국을 비롯한 주요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다.

포스코그룹은 철강사업에서 축적한 원료 확보·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리튬사업을 확대해왔다. 우량 리튬 자원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생산 기반을 구축했으며, 이번 계약을 통해 중국 시장 내 판매 기반을 강화하게 됐다.

이번 계약은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강조해 온 우량 자원 선제 확보와 글로벌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 협력 전략의 일환이다.

포스코그룹은 앞으로 리튬 생산 역량과 판매 경쟁력을 높여 수익성을 개선하고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유혜온 기자 dhaledhale@



지난 17일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진행한 업무협약식에서 김명곤 코웨이라이프솔루션 대표(왼쪽)가 정지원 알고케어 대표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코라솔

코웨이라이프솔루션

## 시니어 고객 맞춤형 영양제 관리 서비스

코웨이라이프솔루션이 AI 헬스케어 기업 '알고케어'와 손잡고 시니어 고객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한다.

18일 코웨이라이프솔루션에 따르면 업무협약을 맺은 알고케어는 AI와 IoT 기술 기반의 헬스케어 전문기업으로, 개인별 건강정보를 바탕으로 영양제를 추천하고 전용 기기를 통해 매일 필요한 영양제를 자동으로 조합해 주는 맞춤형 영양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건강관리에 대한 시니어 고객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다양한 영양제 중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는 제품과 섭취 방법을 선택하는 데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고객을 위해 마련됐다.

코라솔은 알고케어의 맞춤 영양관리 서비스를 멤버십에 연계해 주요 고객층인 시니어 세대가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건강관리 혜택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코라솔 고객은 알고케어 E1 PRO 렌탈 패키지 이용 시 알고케어가 제공하는 렌탈료 할인과 영양제 포인트 뿐만 아니라 멤버십 혜택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제휴 혜택은 코웨이 고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세부 혜택과 이용 방법은 코웨이라이프솔루션 공식 사이트와 코웨이닷컴 내 '코웨이 멤버스 클럽'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 "혁신 中企 매출 1000조·수출 100조 목표"

〈2030년까지〉

**중기부 '중소기업 혁신대전' 개막**
**수출 1조弗 달성에도 구조적 위기**
**내년 中企 R&D 예산 2.5조 확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이 18일 충청북도 청주시 오스코에서 열린 '2026 중소기업 혁신 대전'에서 참석자들과 세레머니를 하고 있다.

기술·경영혁신 중소기업들이 2030년까지 매출 1000조원, 수출 100조원을 달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혁신형 중소기업 신규 채용도 20만명을 목표했다.

10월말 기준 이노비즈(INNOBIZ·기술혁신) 기업은 2만3585개사, 경영혁신(MAINBIZ·메인비즈) 기업은 2만7201개사로 집계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오후 충북 청주 오송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 중소기업 혁신대전'에서 이노비즈협회, 메인비즈협회 등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혁신선포식을 갖고 혁신형 중소기업들이 국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에 앞장서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수출 1조 달러 클럽'이라고 하는 일본도 가보지 못한 역사적 실적을 달성하고, 1인당 국민소득도 올해 4만 달러 진입이 확실하다고 한다"면서 "그러나 법인 파산이 역대 최대에 이르고 노란우산 폐업공제금 지급이 작년보다 20% 증가하는 등 일부 업종, 일부 기업 외에 다수 중소기업에게 (수출 1조 등) 성장의 기회가 주어지지 못하고 새로운 구조적 위기가 찾아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우리가 이룩한 성과와 결과물들은 중소기업인이 그간 흘려온 피와 땀, 눈물의 결과일 것인데 그 과실이 중소기업들에게도 공평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이런 질문에 더 나은 답을 하기위해선 지금보다 더 치열해져야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 혁신대전이 충청권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 행사 주제는 '혁신의 큰물결, 국가 메가 프로젝트의 성공을 열다'(Next W.A.V.E of Innovation)를 테마로 혁신주제관, 제조AI페스타, K-INNO SHOW, 지역혁신관 등 4개의 테마관에 133개 중소기업이 참여해 전시부스를 만들었다.

이날부터 20일까지 사흘간 'AI+ 대전환 상생협약식', '중소기업 혁신네트워크 포럼', 'R&D 우수성과 상생협력 성과공유회', '스마트제조 IR 투자설명회', '충북기업인의 날' 등 26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개막식에는 이 장관을 비롯해 신용한 충북도지사, 송재봉 국회의원, 중소기업인 및 관계자 등 800여 명이 함께했다.

유공자 포상식에선 ㈜해광 고 김재호 회장이 금탑산업훈장, ㈜신한씨에스 최용성 대표가 은탑산업훈장, ㈜고모텍 김진양 부사장이 동탑산업훈장을 각각 수훈했다.

올해 8월 작고한 김 회장이 1987년 창업한 해광은 미국에서 전량 수입하던 반도체 팹(FAB) 및 클린룸용 'AL Access Floor'를 자체 개발하는 등 국산화에 앞장섰다. 현재 해광의 관련 분야 세계시장 점유율은 25%에 이를 정도로 독보적이다.

이들과 함께 올해 유공자 포상식에선 총 313명에게 포상이 돌아갔다.

중기부는 앞으로 '중소기업 혁신대전'을 지역중심으로 개최해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성과를 알리고, 행사를 통해 지역기업이 기술개발(R&D), 투자, 글로벌진출 등의 기회를 가질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은 대한민국 산업의 새로운 혁신성장을 이끄는 주역으로 중소기업이 중심이 돼 국가 메가프로젝트를 선도해야 한다"며 "중기부도 내년 중소기업 R&D 지원예산을 2조5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국가 메가프로젝트 분야 혁신 중소기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삼성전기-엔비디아 협력 강화 기판·MLCC로 공급망 확대

**삼성전기 세종·부산 사업장 확충에**
**추가 지원 검토… 2029년 양산 목표**
**패키지기판 이어 MLCC도 협력**

삼성전기와 엔비디아가 인공지능(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지기판 공급 협력을 확대한다. 엔비디아는 삼성전기의 국내 생산시설 확충을 위한 추가 자금지원을 검토하고 있으며, 양사는 적층세라믹커패시터(MLCC) 분야로도 협력 범위를 넓힌다.

삼성전기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그래픽처리장치(GPU)와 가속 컴퓨팅 플랫폼 생산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 패키지기판 공급 및 생산 인프라 협력을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양사는 지난 10월 반도체 패키지기판 공급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발표했다. 당시 엔비디아는 삼성전기의 세종·부산 사업장에 AI 반도체 패키지기판 전용 생산시설을 증설하기 위한 대규모 자금 지원을 결정했다.

이번에는 기존 지원에 더해 추가 자금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지원이 이뤄질 경우 세종·부산 사업장의 생산 인프라 확충과 첨단 설비 도입에 활용될 예정이다. 삼성전기는 이를 기반으로 오는 2029년부터 본격적인 양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삼성전기는 세종·부산 사업장의 생산라인 운영 효율과 품질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차세대 GPU 및 데이터센터 네트워크용 패키지기판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삼성전기는 엔비디아의 데이터센터용 네트워크 반도체에 사용되는 플립칩 볼그리드 어레이(FC-BGA)를 공급하며 협력 관계를 구축해 왔다. 특히 고속 데이터 전송을 담당하는 'NV스위치'용 FC-BGA를 양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I 반도체의 고성능화로 기판의 대면적·고다층화가 진행되면서 초미세 회로 구현과 휨 현상 억제 등 첨단 패키징 기술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양사는 패키지기판에 이어 MLCC 분야에서도 협력한다. MLCC는 전자회로에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핵심 부품이다. 삼성전기는 엔비디아의 고집적·고출력 AI 컴퓨팅 플랫폼에 필요한 고신뢰성 MLCC 공급 협력을 추진한다.

장덕현 삼성전기 사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판 미세 가공 기술과 고신뢰성 MLCC 기술력을 결합해, 엔비디아의 AI 플랫폼이 최고의 성능과 품질로 글로벌 시장에 적시 공급될 수 있도록 토탈 솔루션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완벽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데보라 쇼퀴스트 엔비디아 운영 총괄 수석부사장은 "AI 인프라에 대한 장기적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걸친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삼성전기와의 협력은 기존 기판 공급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하며, 엔비디아의 현재 및 차세대 가속 컴퓨팅 플랫폼의 생산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 르노코리아, 장기보증·한정판 SUV 혜택

**필랑트·2027년형 그랑 콜레오스에**
**최대 7년·14만㎞ 무상 보증 연장 제공**

르노코리아가 최대 7년의 장기 보증과 차별화된 디자인의 한정판 모델을 앞세워 신차 구매부터 사후 관리까지 고객 혜택을 넓히고 있다.

르노코리아는 필랑트와 2027년형 그랑 콜레오스 출고 고객에게 최대 7년·14만㎞의 무상 보증 연장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존 3년·6만㎞인 차체·일반부품과 5년·10만㎞인 엔진·동력전달 부품의 보증을 모두 최대 7년·14만㎞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증 연장은 정기적인 차량 관리와 연계된다. 신차 출고 후 매년 365일 이내에 한 차례 르노코리아 공식 서비스 네트워크에서 12가지 무상 점검과 유상 엔진오일 교환을 받으면 된다. 엔진오일 교환 비용은 고객이 부담하지만 보증 연장에 별도 비용은 들지 않는다. 중고차로 판매할 때도 다음 차주에게 혜택이 승계된다.




르노코리아 서비스 센터. /르노코리아

장기 보증과 함께 디자인과 편의사양을 차별화한 한정판 모델도 선보였다. 그랑 콜레오스 '에뚜알 에디션'은 파리의 밤하늘 별빛에서 영감을 얻은 흰색 중심의 디자인으로 꾸몄다.

필랑트 '누아르 에디션'은 메탈릭 블랙 외장과 20인치 올 블랙 휠로 통일감을 살렸다.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와 증강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AR-HUD) 등 250만원 상당의 사양을 기본으로 갖췄으며 1000대 한정으로 선보였다. /이승혁 기자 sh95@

# 여경협, 유망 펨테크 기업 美 진출 지원

**7개사와 실리콘밸리서 '펨테크 IR'**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국내 유망 펨테크(Fem-Tech) 기업과 미국 실리콘밸리 현지 투자자들을 연결해 투자유치,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나섰다.

여경협은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현지시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국내 펨테크 기업 7개사가 참여하는 '2026 드림챌린지 K-Startup : 펨테크 IR'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고 여경협이 주관하는 펨테크 산업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 발굴·육성 중인 유망 펨테크 기업 25개사 가운데 일부가 미국 현지 IR에 참여한다.

참가기업들은 기술력과 사업모델, 성장 가능성을 발표하고 현지 투자자들과 질의응답 및 네트워킹을 진행하며 투자유치 기회를 모색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Salut Lucide
UV PROTECTION PATCH

# 6시간 야외활동 후, 피부는 달라집니다.

## 보이지 않는 보호, 더 우아한 선케어

골프, 여행 등 야외 활동을 위한 초슬림 투명 UV패치

세계 100대 골프 코스,
엄격한 제품 선별 기준의
**해슬리 나인브릿지에 국내 유일 입점**

# UV-A 98% / UV-B 99% 차단
# 광대까지 커버되는 88mm × 60mm 대형 패치
# 접착제 없이 편안한 밀착
# 자외선 차단 + 피부 보습 케어




Anano Inc. | 070-7773-9931 |

■ **가양역_메가팜스 가양**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금부빌딩 3층
■ **을지로입구_명동퍼스트약국**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14 눈스퀘어 1층 (T.02-3789-7277)
■ **명동역_Hello K Beauty** / WYNN (Currency Exchange, ATM, LUggage)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6길 6, 원스환전소 2~3층
■ **양재역_메디피아 약국**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42, 크리스탈빌딩 1층 (T.02-3463-1547)
■ **신논현역_비비 약국**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476, urbanhive 지하 2층 (T.02-542-8559)
■ **해슬리 나인브릿지** / 경기도 여주시 명품1로 76 (T.031-887-9999)
■ **제주 나인브릿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광평로 34-156 (T.064-793-9999)

# 센텀시티-동래 잇는 입지… 교통망도 탄탄

**e편한세상 센텀 리버루체**
**DL이앤씨**

강변 조망에 프리미엄 조경



DL이앤씨는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668-1 일원에서 반여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e편한세상 센텀 리버루체'를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6층, 5개 동, 전용면적 47~84㎡ 총 53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일반 분양은 ▲47㎡ 46가구 ▲59㎡A 36가구 ▲59㎡B 84가구 ▲84㎡A 19가구 ▲84㎡B 32가구 ▲84㎡C 42가구 등 259가구다.

e편한세상 센텀 리버루체는 오는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와 인접해 있다. 완공 시 8만4000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단지가 들어서는 반여동은 센텀2지구와 가깝고, 기존 센텀시티가 위치한 우동·재송동 및 동래구 안락동·명장동 사이에 있어 해운대구와 동래구 생활권을 함께 누릴 수 있다.

삼어초교가 도보권에 위치했으며, 단지 앞과 뒤로 수영강과 옥봉산이 자리해 일부 세대에서는 수영강과 옥봉산 조망이 가능할 전망이다. 단지 반경 600m 내에 부산도시철도 4호선 금사역이 위치해 있으며, 노선을 이용하면 1호선 환승역인 동래역까지 10분대, 서면역까지 20분대 이동이 가능하다. 원동IC가 인접해 번영로 등을 이용할 수 있고, 수영강변대로를 통해 센텀시티를 비롯한 부산 주요 지역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e편한세상 센텀 리버루체는 전용 59㎡ 이상 전 주택형에는 안방 드레스룸이, 전용 84㎡ 전 주택형에는 현관팬트리가 조성돼 넉넉한 수납공간을 확보했다. 라이프스타일 맞춤 플랫폼 'C2 하우스' 혁신설계와 '스마트 클린&케어 솔루션' 등도 적용된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실내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룸, 미니짐(탁구), 피트니스, G.X룸 등이 마련된다. 실내 놀이터인 키즈라운지, 안전한 등하원을 위한 키즈 스테이션, 작은 도서관인 라운지 카페 등 자녀를 위한 다양한 공간들도 조성된다. 조경의 경우 e편한세상의 프리미엄 조경 브랜드인 '드포엠(dePoem)'을 적용한다.

# 부산 괴정역 도보권… 생활 인프라 한곳에

**괴정역 푸르지오 더 센트럴**
**대우건설**

스카이 커뮤니티 마련하고 클린에어시스템 적용



대우건설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 530-13 일원에 '괴정역 푸르지오 더 센트럴'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괴정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조성되며, 지하 2층~지상 26층, 7개동, 총 757세대 규모다. 이 중 조합원분을 제외한 228세대가 일반분양 예정이다.

부산 도시철도 1호선 괴정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1호선을 통해 서면, 부산역 등 부산 도심권으로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다. 향후 사상~하단선(2027년 12월 준공 예정)의 하단역을 통해 서부산 주요 거점으로의 접근도 수월해질 전망이다. 신평·장림일반산업단지를 비롯해 녹산국가산업단지 등 서부산 산업거점과도 가깝다.

단지 인근에는 뉴코아아울렛 괴정점, 괴정시장 등 생활편의시설이 위치해 있으며, 옥천초, 장평중, 해동고, 동아고, 삼성여고 등 도보 통학이 가능한 학교와 사하구 중심 학원가도 가깝다.

괴정역 푸르지오 더 센트럴은 남향 위주 배치에 동서·남북 방향으로 열린 통경축을 계획해 채광과 개방감을 높였다. 단지 내 일반차량 도로를 없앤 지상 중앙광장에는 수경시설과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하고, 차량 주출입구 인근에는 돌봄센터와 통학차량 대기공간을 두었다. 일반분양분이 소형 평형으로 구성되는 만큼 59㎡A 타입은 4베이 판상형 구조로 채광과 통풍을 높였고, 주방과 연결된 원스톱 세탁공간과 창호를 적용한 드레스룸 등으로 수납과 환기를 강화했다.

최상층에는 주변 시야 간섭 없이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스카이 커뮤니티가 계획됐으며, 채광이 가능한 선큰 커뮤니티에는 GDR(실내 스크린 골프 연습 시스템)을 갖춘 골프클럽, GX룸을 포함한 피트니스클럽, 선큰 조망형 카페 등이 조성된다. 지하 1층에는 택배차량 진입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스마트 생활 편의성도 높였다. 주방 조리대에 맥세이프 스마트폰 충전기를 설치해 집안일을 하면서 눈높이에서 스마트폰을 보고 충전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단지 입구부터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집 안까지 미세먼지를 5단계로 관리하는 푸르지오 클린에어시스템을 적용한다.

# 한강변에 들어서는 5000가구 역세권 대단지

**디에이치 반포124**
**현대건설**

아이스링크부터 스카이브릿지까지 갖춰



현대건설은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를 재건축한 '디에이치 반포124'를 내놓는다.

단지는 지상 최고 35층, 50개 동, 총 5007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59~130㎡ 1801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전용면적별로는 ▲59㎡ 279가구 ▲80㎡ 23가구 ▲84㎡ 1358가구 ▲99㎡ 81가구 ▲114㎡ 43가구 ▲130㎡ 17가구다.

디에이치 반포124는 교통·교육·쇼핑·문화 등 풍부한 인프라를 편리하게 누릴 수 있다.

서울지하철 9호선 구반포역 및 4·9호선 동작역을 걸어서 이용 가능한 역세권 단지며, 단지 주변 올림픽대로, 반포대로 등을 통해서도 서울 주요지역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반포초는 개축을 마치고 올해 9월 문을 열었으며, 반포중은 내년 재개교를 앞두고 있다. 여기에 세화여중과 세화고, 세화여고까지 걸어서 통학할 수 있으며, 단지 내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각 1개교가 추가로 신설될 예정이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과 센트럴시티 등 대형 쇼핑·외식·문화시설이 가깝고,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과 반포종합운동장 등 의료·체육시설이 인접해 있다. 또 반포한강공원이 가까운 한강변 입지로 다양한 여가시설을 언제든 이용할 수 있다.

단지 외관은 한강변 입지를 모티브로 차별화한다. 한강의 물결을 형상화한 옥상장식물과 세계적인 건축설계사 '모포시스'와 함께 완성한 디에이치 반포124의 패턴 '아이코닉윌'을 선보인다. 단지 중앙에는 다양한 선큰 광장을 조성하고, 한강 조망을 극대화한 스카이브릿지를 배치해 한강변 랜드마크 단지에 걸맞은 개방감과 상징성을 살렸다.

커뮤니티는 약 2만3500평, 세대당 약 4.7평 규모로 계획됐다. 커뮤니티 디자인은 세계적인 설계사 아카디스(ARCADIS)와 협업해 완성했으며, 선큰 구조를 활용한 시그니처 디자인으로 지하 공간에서도 자연채광과 개방감을 확보했다. 실내 아이스링크를 비롯해 실내 풋살장, 실내체육관, 실내테니스장이 배치돼 날씨와 계절에 관계없이 운동을 즐길 수 있다.

# 산단·KTX 품은 입지… 울산 주거 중심 부상

**힐스테이트 울산역리버포레**
**현대엔지니어링**

울산역세권 첫 힐스테이트… 40층 랜드마크



현대엔지니어링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신화리 1625 일원 KTX울산역세권 복합지구 M5블록에서 '힐스테이트 울산역리버포레'를 분양할 계획이다. 울산 역세권 지구에서 최초로 선보이는 1군 브랜드 단지다.

힐스테이트 울산역리버포레는 아파트와 주거형 오피스텔이 함께 조성되는 주거복합단지다. 지하 3층~지상 최고 40층, 5개 동, 총 734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아파트는 436세대 규모다. 타입별로는 ▲84㎡A 148세대 ▲84㎡B 74세대 ▲84㎡C 148세대 ▲84㎡D 66세대다.

주거형 오피스텔은 298실 규모다. 타입별로는 ▲112㎡A 76실 ▲110㎡B 38실 ▲119㎡C 76실 ▲113㎡D 72실 ▲114㎡E 36실이다.

힐스테이트 울산역리버포레는 KTX울산역과 인접한 역세권 단지다. KTX울산역을 거점으로 울산~양산~부산 광역철도가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어 교통여건은 더 개선될 전망이다.

단지가 들어서는 KTX울산역세권 일대에는 약 1만1000세대 규모로 계획된 복합특화단지 '뉴온시티'가 조성 중이며, 울산경제자유구역(R&D 비즈니스밸리)과 울산 도심융합특구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이 함께 추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인근에는 다양한 산업단지가 위치했다. 단지에서 차량으로 반천일반산업단지, UNIST(울산과학기술원), 삼성SDI 등을 10분 내외로 이동할 수 있다.

힐스테이트 울산역리버포레는 태화강과 무학산 조망(일부 제외)이 가능하며, 단지 주변으로 태화강 수변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등 인프라를 갖췄다. 또한 지상 최고 40층 규모로 조성되는 만큼 울산역세권 개발지구의 스카이라인을 이끌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설계에는 덴마크 기반 글로벌 건축디자인 그룹 '어반에이전시'가 참여해 도심과 자연의 조화를 고려한 단지를 선보인다.

견본주택은 울산 중구 우정동 522-1 일원에 마련된다.

일자리·교통
알짜 단지
겨울 청약시
겨울 초입에도 아파트 분양시장이 뜨
분양 물량이 많은 단지들이 대기 중
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
도권 공공주택지구, 지방 공공·민간
포함됐다. 수도권에서는 주요 일자
새 아파트가 선을 보이며, 최근 몇 년
서도 분양 단지들이 대기 중이다. 업
인프라 측면에서 실거주 여건을 모
규모 공원으로 자연환경을 누릴 수
강남권 재건축과 수도권 공공택지
급되는 만큼 자신의 청약 자격과 자
별 청약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



# 통·교육 갖춘 쏟아진다 시장 '후끈'

뜨겁다. 청약시장에 공급되는 일반 중이어서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수 서울 강남권 대규모 재건축부터 수 간분양까지 다양한 유형의 단지가 리 접근성이 좋은 2기 신도시에서 년간 신축 공급이 드물었던 지방에 역세권에 위치해 교통과 교육, 생활 두 갖춘 단지들이 선을 보이며, 대 도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 등 성격이 다른 물량이 동시에 공 금 여건, 입지를 꼼꼼히 비교해 선 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 전 세대 84㎡에 수영장·사우나… 차별화된 공간

**경북도청 푸르지오 퍼스티온**
**대우건설 컨소시엄**

경북도청신도시 중심에 1165세대 공급



대우건설 컨소시엄(대우건설·중흥건설·제일건설)은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읍 경북도청신도시 2단계 B-10BL에 들어서는 '경북도청 푸르지오 퍼스티온'을 공급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12개 동, 전용면적 84㎡ 단일 타입 총 1165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타입별 세대수는 ▲84㎡A 500세대 ▲84㎡B 290세대 ▲84㎡C 146세대 ▲84㎡D 229세대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며, 입주는 오는 2029년 8월 예정이다.

경북도청 푸르지오 퍼스티온은 경북도청신도시 2단계 첫 분양 단지며, 예천·안동 지역에 처음 들어서는 푸르지오 브랜드 아파트다. 2단계 B-10BL과 A-4BL에 걸쳐 총 2408세대 규모로 들어설 푸르지오 브랜드타운의 마중물 단지다. 경북도청신도시 내 민간분양 아파트 공급은 2016년 이후 약 10년 만이다.

경북도청신도시는 경상북도청 이전에 발맞춰 안동시 풍천면과 예천군 호명읍 일원 약 11㎢에 조성 중인 행정중심 신도시다. 단지는 경북도청신도시 중심부에 위치해 이미 형성된 1단계 생활권의 행정·교육·상업 인프라를 그대로 공유한다. 단지는 하나로마트, 경북도서관, 중심상업지구, 메가박스 등 편의시설이 인접해 있고, 경상북도청 등 행정기관으로의 출퇴근이 용이하다.

단지 바로 앞에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부지가 계획돼 있으며, 호명중학교가 2027년 3월 개교를 앞두고 있다. 중심상업지구 학원가와 경북도서관 이용도 편리하다.

교통망은 국도 28·34·85호선이 연결돼 예천·안동·문경 등 경북 북부권 이동이 용이하며, 중앙고속도로 서안동IC 진입이 수월하다. 중앙선 KTX-이음 안동역을 이용하면 서울 청량리역까지 2시간 안팎에 이동할 수 있다.

단지 설계는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 84㎡ 단일 면적으로 구성된다. 전체 1165세대 중 936세대에 4베이 판상형 설계를 적용해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으며, 일부 타입에는 3면 발코니 구조를 적용했다.

# 성남하이테크밸리 직주근접… 836가구 조성

**두산위브 더포레 성남**
**두산건설**

강남·판교 가깝고 정비사업 호재



두산건설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95-5 일원에서 '두산위브 더포레 성남'을 공급할 계획이다.

두산위브 더포레 성남은 성지·궁전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지하 5층~지상 최고 25층, 8개 동, 총 836가구로 조성된다. 이 중 전용면적 51~59㎡, 162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단지가 조성되는 성남시 중원구 일대는 강남, 판교 접근성이 좋고, 대규모 정비사업으로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 입주업체 3658곳, 고용인원 4만2651명 규모의 성남하이테크밸리가 인접해 직주근접 입지다.

단지는 맞닿은 순환로를 통해 수정로, 경충대로, 광명로로 이어져 성남 주요 지역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수도권제1순환도로와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화도로, 세종-포천고속도로(구리-안성 구간) 등 광역도로망 접근성도 좋아 강남과 판교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역으로 이동이 수월하다.

생활 인프라로는 이마트 성남점, 세이브존 성남점, 상대원시장, 단대전통시장과 함께 성남중앙병원과 중원구보건소, 해오름도서관, 롯데시네마 등 의료 및 문화시설이 갖춰져 있다. 검단산과 망덕산으로 이어지는 등산로를 단지 가까이서 이용할 수 있으며, 황송공원과 사기막골근린공원, 남한산성 등도 인접했다.

교육환경으로는 단지 인근에 상대원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이 위치해 어린 자녀들의 도보 통학이 가능하다. 여기에 대원중, 금광중, 숭신중·고, 신구대학교와 금광동 학원가도 가깝다.

주변 정비사업 진행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 기대감도 높다. 단지가 들어서는 상대원동에서는 상대원2구역, 상대원3구역 등 약 1만 6000가구 규모의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 인접한 금광동과 중앙동, 은행동 등 성남 원도심 곳곳에서도 대규모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분양 관계자는 "중원구에서 약 2년 만에 신규 분양되는 만큼 성남시 입성을 희망하는 수요자는 물론 기존 생활권 내에서 새 아파트로 갈아타려는 실수요자까지 관심이 높을 것"이라고 전했다.

# 차 없는 공원형 단지… 갈매역세권 새 아파트

**구리갈매역세권 우미린 더 시그니처**
**우미건설**

734가구 민간분양 최대 규모



우미건설은 경기도 구리시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이하 구리갈매역세권지구)에서 '구리갈매역세권 우미린 더 시그니처'를 분양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브랜드 아파트며, 구리갈매역세권지구 민간분양 단지 가운데 최대 규모다.

단지는 구리갈매역세권지구 S-1블록에 지하 2층~지상 29층, 7개 동, 전용면적 84·101·111㎡, 총 73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구리갈매역세권지구는 구리시 갈매동 일대 약 79만 7000㎡ 부지에 6320가구, 1만 5295명을 수용하는 공공주택지구다. 서울 중랑구·노원구, 남양주 별내동과 맞닿은 수도권 동북권 요지에 자리한다.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구리갈매지구·남양주별내지구와 인접해 기존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고, 지구 내 상업시설과 학교, 대규모 근린공원 등도 계획돼 있다.

교통 여건은 단지 인근에 경춘선 갈매역과 8호선·경춘선 별내역이 있다. 2024년 8호선 별내선 개통으로 별내역에서 잠실역까지 20분대에 이동할 수 있게 됐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예정)도 별내역에 정차할 예정이다.

세종포천고속도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등 광역 도로망 이용도 편리하며, 건설이 계획된 구리~성남 지하고속도로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교육 환경은 단지 바로 앞에 유치원과 초·중교(가칭 갈매역세권2초 2028년 9월 개교 예정, 가칭 갈매역세권중 2029년 3월 개교 예정) 설립이 예정돼 있으며, 중계동 학원가와 갈매도서관 등도 가깝다.

주변에는 이마트,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등 대형 쇼핑시설이 있고, 단지 앞 대규모 근린공원(계획)과 갈매천공원 등 녹지도 가깝다. 일부 가구는 불암산 조망이 가능하다.

구리갈매역세권 우미린 더 시그니처는 남향 위주로 배치해 채광과 개방감을 확보했으며, 근린생활시설을 제외한 주차공간을 모두 지하에 배치해 지상에 차가 없는 공원형 단지로 조성된다.

# 위례 최고층 48층… 희소성 갖춘 중대형 평면

**호반써밋 에디션 위례**
**호반건설**

강남·잠실 업무지구 접근성 뛰어나



호반건설은 경기도 하남시 위례택지개발지구 일반상업용지 9-1, 9-2BL에 들어서는 '호반써밋 에디션 위례'를 분양할 예정이다. 프리미엄 라인인 '호반써밋 에디션'이 적용되는 첫 단지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48층, 4개동, 총 576실 규모로 조성된다. 타입별로는 전용 ▲121㎡A 284실 ▲121㎡B 284실 ▲186㎡ 펜트하우스 8실로 구성된다. 모든 호실이 전용 121㎡ 이상으로 설계되며, 최고 48층의 스카이라인과 다양한 주거 특화시설을 갖춘다.

위례신도시는 서울 송파구와 경기 성남시·하남시에 걸쳐 조성된 2기 신도시다. 2013년 첫 아파트 입주 이래 올해까지 3만 8000여가구가 입주를 마쳤다.

단지는 인근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와 송파IC 등을 통해 서울 송파·강남권 및 성남 등으로 이동할 수 있다. 특히 서울 동남권과 인접한 위례신도시의 입지적 특성상 잠실과 문정법조타운, 강남권 등 주요 업무지역 접근성도 좋다. 이와 함께 내년 개통 예정인 위례선 트램 북위례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교육환경으로는 위례숲초와 위례중, 위례고 등 학교시설이 가까우며 위례 일대에 형성된 학원가도 이용할 수 있다. 트랜짓몰과 스타필드시티 위례 등 쇼핑·외식시설이 인접해 있으며, 가락시장과 서울아산병원 등 송파권의 주요 생활·의료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주변에는 위례호수공원, 치유공원, 장지천 등 공원과 녹지공간이 자리했다.

호반써밋 에디션 위례는 위례신도시에서 가장 높은 최고 48층 규모의 랜드마크 단지로 위례에서 희소한 전용면적 121㎡ 이상의 중대형 평면을 적용한다. 주력 타입인 전용 121㎡A·B에는 발코니 공간을 마련해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최상층에는 전용 186㎡ 규모의 펜트하우스 8실도 선보인다.

# 올해 최고의 게임은 펄어비스 '붉은사막'… 역대 최다 8관왕

**대한민국 게임대상**

**펄어비스 '붉은사막' 대통령상 수상**
**엔씨 '아이온2', 최우수상·인기상**
**최휘영 "게임, K-컬처 400조 주역"**
**인디게임 지원 확대, 펀드·융자 조성**


'2026 대한민국 게임대상'에서 대통령 상을 받은 펄어비스 허진영 PD가 소감을 전하고 있다. /부산=최빛나 기자

펄어비스의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게임 '붉은사막'이 '2026 대한민국 게임대상'에서 최고 영예인 대통령상을 거머쥐며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새 역사를 썼다. 기술·창작상과 올해 신설된 글로벌게임상 등 주요 부문을 휩쓸며 역대 최다 수상 기록을 경신했다.

18일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 지스타 특설무대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게임대상' 시상식에서 펄어비스의 '붉은사막'이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게임대상은 한 해 동안 국내 게임산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 게임과 개발자를 선정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시상식이다.

올해 시상식의 주인공은 펄어비스였다. '붉은사막'은 기술·창작상에서 캐릭터, 그래픽, 기획·시나리오 등 주요 부문을 석권했다. 여기에 이현 성우가 인기성우상을 수상했으며, 펄어비스는 우수개발자상과 올해 신설된 글로벌게임상까지 차지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상까지 거머쥐며 역대 최다 수상 기록을 새롭게 썼다. 앞서 2019년 '로스트아크'와 2023년 'P의 거짓' 등이 기록한 6관왕을 넘어선 성과다.

'붉은사막'은 펄어비스가 자체 개발한 '블랙스페이스 엔진'을 기반으로 제작한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게임이다. 광활한 게임 세계와 역동적인 전투 시스템, 정교한 그래픽과 환경 상호작용 등을 구현하며 국내 게임 개발 기술력을 입증했다.

글로벌 흥행 성과도 두드러졌다. 지난 3월 출시된 '붉은사막'은 출시 첫날 글로벌 누적 판매량 200만장을 기록한 데 이어 출시 83일 만에 600만장을 돌파했다. 신규 지식재산권(IP)으로 세계 시장에서 상업적 성공을 거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신설된 글로벌게임상까지 수상하면서 국내 게임산업이 모바일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중심에서 글로벌 PC·콘솔 시장으로 경쟁력을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번 게임대상에는 총 12개 작품이 본상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펄어비스 '붉은사막'과 엔씨 '아이온2'를 비롯해 넷마블, 스마일게이트, 컴투스, 크래프톤, 카카오게임즈, 조이시티 등의 작품이 경쟁했다.

최우수상(국무총리상)은 엔씨의 '아이온2'가 차지했다. '아이온2'는 인기게임상도 수상했다. 우수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은 카카오게임즈 '도깨비의세계', 크래프톤 '미메시스', 컴투스 '제우스: 오만의 신' 등 3개 작품에 돌아갔다. 특별상 부문에서는 다이빙스튜디오의 '그날의 신문'이 굿게임상을 수상했으며, 인디게임상은 '골목길'이 차지했다. 이스포츠발전상은 님블뉴런, 사회공헌우수상은 엔씨소프트가 각각 받았다.

이날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게임산업을 대한민국 콘텐츠 수출의 핵심 동력으로 평가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최 장관은 축사를 통해 "게임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 문화와 기술이 융합된 대한민국 대표적인 산업이자 콘텐츠 분야 수출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이라며 "게임산업이 K-컬처 400조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부터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대작 게임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인디게임 기획·제작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게임 분야 청년인턴십 지원 규모 역시 500명까지 늘린다.

자금 지원도 강화한다. 올해 마련된 1200억원 규모의 IP 펀드에 이어 내년에는 콘텐츠 분야에 1조5000억원 규모의 펀드와 6000억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부산=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 AI-RAN이 완성차 이송… SKT, 전파방송 기술대상 장관상

**5년 연속 장관상 수상 기록**
**자율주행 기능 없는 차량도 이송**
**내년 KG모빌리티 물류 현장 적용**



SK텔레콤 류탁기 네트워크기술담당(오른쪽 네번째)이 18일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전파방송 기술대상에서 수상하고 있다. /SK텔레콤

SK텔레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전파진흥협회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주관하는 '제27회 전파방송 기술대상'에서 AI-RAN 기반 완성차 무인 자율 이송 기술(AVM)이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이번 수상으로 2022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장관상을 받는 기록을 세웠다. 특히 AI-RAN 기반 AVM 기술은 지난달 글로벌 유무선 네트워크 시상식인 '네트워크 엑스 어워드'에서 '가장 혁신적인 5G 통신 서비스' 부문을 수상한 데 이어 2관왕에 올랐다.

이 기술은 차량이 아닌 AI-RAN이 현장을 인지하고 판단해 차량을 직접 제어하는 기술이다. 기존 완성차 물류는 사람 손에 의존해 자율주행 기능이 없는 차량에는 자동화를 적용할 수 없었다. 회사 측은 통신과 AI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차세대 네트워크 인프라인 AI-RAN으로 이같은 한계를 풀어냈다는 설명이다.

현장에 설치된 라이다(LiDAR) 센서가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AI-RAN 기지국으로 전송하면, 기지국은 이를 토대로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 상황을 판단하고 최적 경로와 주행 명령을 계산한다. 이어 5G SA 통신으로 차량에 조향·가속·감속·변속 등 제어 신호를 직접 전달한다.

이 기술은 지난해 SK텔레콤이 에치에프알, 서울로보틱스와 함께 수행한 '엣지 AI 기반 자율주행 PoC' 및 AI-RAN 핵심 기술 개발 과제를 통해 확보했다. SK텔레콤이 엣지 AI 및 AI-RAN 핵심 기술을, 에치에프알이 5G 특화망 기지국 장비를, 서울로보틱스는 라이다 기반 공간 인지 및 차량 제어 기술을 각각 맡아 실제 주차 시설에서 자율 주차 운영 공동 실증을 진행했다.

실증 결과, 센서 데이터 수집부터 AI 판단 및 주행 명령 전달까지 전 과정이 무인 차량 제어에 필요한 시간 안에 끝나 자율주행 기능이 없는 일반 차량도 무인으로 이송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SK텔레콤은 이렇게 확보한 기술을 올해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하이퍼 AI 네트워크 기반조성 실증사업과 연계해 고도화하고 있다. 1차년도인 올해에는 에치에프알의 AI-RAN을 기반으로 서울로보틱스와 함께 판교에 피지컬 AI 리빙랩을 구축해 무인 자율 이송 서비스를 검증하고 있다.

2차년도인 2027년에는 에릭슨의 5G 기술이 집약된 AI-RAN 선도망을 KG모빌리티 평택공장에 구축해 실제 물류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AI-RAN이 피지컬 AI 실행 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는지 산업 현장에서 검증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AI-RAN 기반 AVM 기술은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6G 비전 페스트 2026'에서 선보일 계획이다.

/조민선 기자 msjo@

## LG U+, AI 활용 IPTV 고장 사전 관리

**IPTV 셋톱박스 420만대에**
**'AI 선제조치 시스템' 적용**

LG유플러스는 IPTV 셋톱박스 420만대에 'AI 선제조치 시스템'을 적용해 사전 예방형 품질관리 체계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AI 선제조치 시스템은 IPTV 단말과 홈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품질 데이터를 분석해 화면 끊김·화질 저하 등 이상 징후를 고객보다 먼저 탐지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한다.

인공지능(AI)이 과거 장애 이력과 정상 이용 패턴을 학습해 품질 저하 가능성을 예측하며, 필요 시 재연결·설정 최적화·원격 점검 등을 자동 수행한다.

이번 체계는 기존 품질관리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고객 체감품질을 높이기 위해 개발했다. 품질관리의 중심을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한다는 전략이다.

LG유플러스가 지난해 UHD4 셋톱박스 약 90만대를 대상으로 AI 선제조치 시스템을 시범 적용한 결과, 문제 원인 분석부터 조치까지 걸리는 시간이 기존 최대 3일에서 즉시 대응이 가능한 수준으로 개선됐다.

현재 AI 학습 데이터를 5배 확대하고, 월 평균 370만건 이상의 품질 데이터를 학습하고 있다. 회사 측은 앞으로 연간 4000만건 이상의 사전 품질 점검과 선제조치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선제조치 운영 현황과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이상관리 선제조치 대시보드'도 구축했다. 대시보드를 통해 전체 운영 수량, 이상 탐지 단말, 조치 성공률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향후 LG유플러스는 인터넷 무선공유기(AP)에도 AI 선제조치 기능을 순차 적용해 IPTV와 인터넷 서비스를 아우르는 통합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조민선 기자

## KT-서울대병원, 의료 AI로봇 현장실증

**어린이 환자 위한 비임상 중심 진행**
**보안 프로토콜로 개인정보 엄격 보호**

KT는 서울대병원과 손잡고 어린이 환자의 케어와 의료진의 업무 지원 등 AI 로봇을 의료 현장에 적용하는 실증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실증은 치료 전후 어린이 환자를 위한 ▲대기 시간과 치료 전후 단계의 대화와 놀이 ▲검사·치료 과정에 대한 눈높이 맞춤 설명 ▲목적지 안내·동행 등 어린이 환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비임상 서비스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의료진의 반복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피지컬 AI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의료 환경에 적합한 서비스 모델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실증의 세부 내용은 서울대병원의 사전 검토와 승인을 통해 안전하게 운영된다.

KT는 한국어 대화 및 AI 에이전트 등 자체 AI 기술을 활용해 병원 현장에 맞는 실증 시나리오 설계와 운영을 총괄한다. 이 밖에 실증을 위한 병원 내 네트워크와 로봇 이동 동선 등 현장 환경을 점검하고 기술 지원을 담당한다.

서울대병원은 어린이 환자와 의료진 관점에서 적용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검사·치료 과정에서 활용할 의료 콘텐츠를 제공·검수한다. 또한 로봇의 이동과 충전·보관, 운영 시간과 방식, 안전·감염관리 등 실증 환경을 마련하고 어린이 환자·보호자·의료진의 피드백을 제공한다.

모든 실증 기간에는 참여자의 정보 보호를 위해 엄격한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프로토콜이 적용되며, 참여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거친 자발적 신청으로만 이루어진다.

또한 의무기록 등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저장하거나 의무기록에 접근하지 않으며 모든 데이터는 AI 모델 학습에 활용되지 않는다.

/조민선 기자

**LG헬로비전**
## 외국인 전용 요금제 선봬

LG헬로비전은 알뜰폰 브랜드 헬로모바일이 월 2만원대 외국인 전용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요금제 상품은 외국인 수요에 맞춘 특화 서비스로 알뜰폰 고객 저변을 확장하기 위해 선보인다.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중고폰을 선호하는 만큼, 이들에게 맞춤형 유심·eSIM 요금제를 제공해 알뜰폰 체감 혜택을 높이 계획이다.

회사는 외국인 유학생과 재외동포 등과 인터뷰를 통해 요금제 가입 과정에서 개선점을 발굴했다. 그 결과 외국인들의 요금제 선택 기준이 가격과 데이터로 나타났으며, 어려운 통신용어와 전화 상담절차 등 개선점에 주목하게 됐다.

이에 실속형 요금제와 언어 장벽을 낮춘 셀프개통 서비스를 선보인다. 먼저 요금제는 월 2만2000원에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속도 걱정없는 유심 7'이다.

/조민선 기자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숨은 길을 세계적인 관광상품으로

# 대한민국 로열로드 45

## 지정도시 전국 모집



관광객이 미처 알지 못했던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길 ,
로열 로드카를 타고 만나는 45 개의 특별한 여행

**전국 45 곳 발굴 · 45 개 공식 지정 · 1 곳 당 로드카 20~30 대 , 2~3 개 팀 운영**




**모집 대상**

**왕실문화·역사·바다·강·호수·산사·농촌 풍경 등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길을
로드카 20~30대가 2~3개 팀으로 나뉘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지역**

선정 지역에는 노선개발·여행상품·공동홍보·통합예약·지정도시 인증을 지원합니다



권장 신청구조

**지자체 + 지역 운영파트너 + 상인·주민 협의체**

지역의 길을 관광산업으로 바꿀 대한민국 로열로드 지정도시를 찾습니다

사업 참여 문의 010-3414-4939

ON나눔

대한민국 로열로드 45 지정도시

# “가스요금 인상 필요… LNG 도입가 낮춰 전기료 안정시켜야”

〈액화천연가스〉

**홍의락 가스공사 사장 간담회**
**고유가 땐 미수금 최대 4조 증가**
**원료비 1원 인상 땐 年 5000억 회수**
**현물 의존 줄이고 장기계약 확대**
**해외 지분물량 200만t 추가 확보**
**트레이딩 강화로 구매 경쟁력 제고**



홍의락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산업통상부 출입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가스공사

홍의락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가스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다시 불어날 수 있는 만큼 요금 정상화를 통해 재무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액화천연가스(LNG) 도입가격을 낮추는 구조적 개선도 강조했다. 가스 도입가격이 전력시장가격과 직결되는 만큼 LNG 구매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전기요금 안정과 국가 경쟁력 확보의 핵심이라는 판단이다.

홍 사장은 18일 산업통상부 출입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제일 중요한 건 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것”이라며 “민간 가스요금을 너무 억제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폐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을 설득하려고 노력해야지 그냥 쓰시면 된다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가스공사에 따르면, 민수용 원료비를 메가줄(MJ)당 1원 인상하면 연간 약 5000억원의 미수금 회수 효과가 발생한다. 연간 민수용 판매물량 약 5000억MJ를 기준으로 산출한 수치다. 반면 현재와 같은 고유가가 지속되면 올해 1분기 대비 내년 1분기 미수금이 최대 4조원까지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요금 억제로 원료비 상승분을 제때 반영하지 못할 경우 재무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홍 사장은 요금 인상 이후 국제 에너지 가격이 안정되면 요금을 조정할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은 좀 올릴 때는 올려주는 게 맞다”며 “전쟁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수급 문제도 있는 만큼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사장이 특히 강조한 것은 LNG 도입가격 경쟁력이다. 가스 도입가격이 전력시장가격과 직결되는 만큼 LNG를 얼마나 경제적으로 확보하느냐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한전 부채의 절반 이상은 가스 도입가격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전기요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스의 역할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LNG 도입구조부터 바꿔야 한다는 게 홍 사장의 구상이다. 현물시장 의존도를 낮추고 장기계약 중심으로 도입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한편 해외 가스전 지분투자와 트레이딩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발전용 천연가스 수요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 수급계획을 개선한다. 가스공사는 제15차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부터 기존 기준수요 외에 발전용 천연가스 수요의 변동성을 관리하기 위한 ‘수급관리수요’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충분한 물량을 기간계약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력수요와 발전원 구성 변화에 따라 발전용 LNG 수요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안정적인 도입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트레이딩 역량 강화도 주요 과제다. 홍 사장은 “가스공사가 필요한 물량을 예측해 현물시장에 뛰어가면 국제 시장에서는 이미 가스공사가 물건을 사러 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기다린다”며 “부족할 때 현물시장에서 비싼 물량을 사오는 재래적인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트레이딩 활성화와 관련해 정부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게 가스공사의 설명이다. 정부는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서 트레이딩 활성화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실제 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 등 리스크 테이킹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홍 사장은 트레이딩 조직과 인력을 확대해 능동적인 수급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해외 지분물량 확대도 추진한다. 홍 사장은 현재 가스공사의 해외 지분물량이 약 100만 톤(t) 수준이며, 이를 2031년까지 약 500만 t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해외 지분물량을 확보하면 국내 수급 상황에 따라 물량을 들여오거나 해외 시장에 판매할 수 있어 LNG 도입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중동 의존도는 지속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홍 사장은 올해 LNG 도입의 중동 의존도가 약 26%이며, 2년 뒤에는 18% 수준까지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홍 사장은 “석유와 가스는 태생은 같지만 세상에 나와서는 다른 놀이터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어떻게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지만 방향이 잘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상장기업인 석유공사와 비상장기업인 가스공사의 통합 과정에서 주주 이익과 해외 사업 파트너, 금융기관과의 계약 문제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경제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홍 사장은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어려운 프로젝트”라며 “단기적으로 보면 여름에도 겨울에도 일하기 어려운 기후 조건”이라고 말했다.

홍 사장은 재생에너지와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도 LNG의 역할을 강조했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원전의 경직성을 보완할 유연성 전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에너지원끼리 경쟁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공급 측면이 아니라 수요 측면에서 어떤 에너지가 더 유리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대기업, AI·가상자산으로 미래 먹거리 확보

**공정위, 계열사 변동 현황 공개**
**최근 3개월간 60곳 편입·65곳 제외**
**유사 기능 법인 통폐합해 경영 효율화**

국내 대기업집단들이 인공지능(AI)과 가상자산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관련 기업 인수를 활발히 벌이는 한편, 유사 기능 법인들을 통폐합하며 군살 빼기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3개월간(2026년 8월~10월) 자산 5조 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 변동 현황을 18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11월 2일 기준 102개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속회사는 총 3529개사로, 지난 8월 초(3534개 사)보다 5개 사가 순감소했다. 이 기간 계열사 변동이 있었던 집단은 총 47개였다. 회사설립과 지분취득 등으로 34개 집단에서 60개 사가 새롭게 계열 편입됐고, 흡수합병과 지분매각, 청산종결 등으로 28개 집단에서 65개 사가 계열 제외됐다. 신규 편입이 많은 곳은 한화(6개), 코오롱(4개), 신세계·SK(각 3개) 순이었으며, 계열 제외는 SK(11개), 카카오(8개), CJ(5개) 순으로 많았다.

이번 소속회사 변동을 보면, 우선 AI·데이터 및 디지털 금융 등 미래 성장동력 영입이 두드러졌다. 신세계는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해 에스에스지에이아이코리아 등 2개 사를 계열 편입했다. 미래에셋은 디지털 자산 시장 진출을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 ‘디지털엑스’ 운영사와 트래블룰 솔루션 기업 코드를 계열 편입했다.

또 소규모·유사 기능 법인들을 통합해 경영과 의사결정 구조를 효율화하기 위한 계열 제외가 두드러졌다. SK는 복지 관련 자회사인 행복나무 등 5개 사를 행복모아와 행복한울로 각각 흡수합병해 조직을 정비했다. CJ 역시 제작 자회사 넥스트씬과 제이에스픽쳐스를 각각 스튜디오드래곤과 화앤담픽쳐스로 합병해 동종 업종 간 시너지를 도모했다.

아울러 부동산 개발 및 투자 관련 회사에 대한 계열 편입과 계열 제외가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한화(4개 사)와 KT(2개 사) 등이 부동산 개발·공급 업체를 신규 편입한 반면, GS와 롯데 등은 관련 법인을 청산 종결해 부동산 개발 회사를 계열 제외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 케냐에 농업용수·지하수 관리 노하우 전수

농어촌공사, 현지 공무원 현장교육
농업용수 공급·지하수 관리법 공유

한국농어촌공사가 케냐 공무원을 초청해 농업용수·지하수 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공사는 지난 11~12일 기간 한국을 방문한 케냐 물위생관개부 및 지하수 교육훈련센터 관계자 10명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유네스코 물안보 국제연구교육센터(I-WSSM)가 주관하는 ‘케냐 물안보 역량 강화 초청연수’에 참가했고, 농어촌공사가 현장 교육을 맡았다.

케냐는 기후변화로 수자원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농업용수 이용 효율화와 지속가능한 지하수 관리에 높은 관심을 두고 있다. 이번 교육은 이러한 정책 수요에 맞춰 한국의 농업용수·지하수 관리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날인 11일에는 농업용수 확보·저장·관개시설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경기 의왕 왕송저수지와 경기 화성 화옹지구 양수장, 수질개선 시설 등을 찾아 농업용수 공급과 대단위 농업개발사업의 운영사례를 살펴봤다.

12일 교육에서는 지속 가능한 지하수 개발과 디지털 관리기술이 소개됐다. 공사는 지하수 광역화와 지하수 댐 사업을 소개하고 공공관정 관리시스템과 재해예방 계측시스템을 시연했다. 지하수 관측자료를 활용한 가뭄 취약성 평가 방법도 공유했다. 연수에 참가한 케냐 물위생관개부 관계자는 “이번 연수가 케냐의 안정적인 수자원 관리 역량을 높이는 데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체코 원전 공정 지연 막기 위해 집중 점검

산업부, 한수원 추진계획 점검회의
시공사 교체에 따른 사업 차질 방지

정부가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사업의 공정 지연을 막기 위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사업 추진 현황을 주간 단위로 집중 점검하고 체코 측과의 소통 강화을 강화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박동일 차관 주재로 제2차 ‘한수원 추진계획 점검회의’를 열고, 체코 두코바니 5·6호기(1000MW급 한국형 원전 APR1000 2기) 건설 사업의 추진 상황과 향후 일정을 면밀히 살폈다.

이번 점검회의는 이달부터 가동된 산업부 장·차관 주재 비상관리체제의 일환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2일 차관 주재 1차 점검회의와 12일 장관 주재 ‘팀코리아 체코 원전사업 추진현황 점검회의’를 잇달아 열며 관리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고강도 점검에 나선 배경에는 최근 불거진 시공계약 협상 결렬에 따른 사업 차질 우려가 자리 잡고 있다. 한수원은 지난달 29일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과의 시공계약 협상을 최종 종료하고, 내년 7월 완료를 목표로 새로운 시공사 선정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이날 회의에서 한수원은 시공사 교체 과정에서도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설계·인허가 ▲부지정보 검증 ▲숙소부지 선정 ▲신규 시공사 선정 등에 대한 2026년도 주간 단위 세부관리계획을 보고했다. 한수원 측은 11월 3주 차까지 예정된 모든 계획이 차질 없이 정상 이행됐다고 설명했다.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차 한수원 추진계획 점검회의’에 참석한 박동일 산업통상부 차관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체코 정부 및 발주사와의 공조 체계도 원활히 작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수원은 지난 5일 열린 한-체코 산업통상부 국장급 회의 참석을 비롯해,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방한한 체코 발주사(EDUII)와의 실무 협의를 통해 주요 현안과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 AI 윤리 실천으로 공공서비스 신뢰 강화

근로복지공단, 7대 실천원칙 수립

근로복지공단이 ‘AI 윤리준수기관 확인마크’를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마크는 공공기관의 윤리적 AI 개발·활용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인증한다. AI 윤리원칙을 수립하고 임직원이 AI 윤리교육을 이수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관에 부여한다.

공단은 인간의 존엄성, 공공선, 지속가능성을 3대 핵심 가치로 하는 ‘AI 윤리헌장’을 제정했다. 또한 AI 과의존 경계·개인정보 보호·공정성·책임성·안전성·신뢰성·투명성을 7대 실천원칙으로 정해 임직원이 업무에서 지켜야 할 기준도 구체화했다.

AI 윤리헌장과 7대 실천원칙을 전국 소속기관에 공유했고, 전 임직원의 99.5%가 AI 윤리교육을 수료했다. 또 임직원이 업무에서 지킬 원칙을 한 줄로 적는 ‘나의 AI 윤리 한 줄 약속’ 캠페인도 진행해 AI 윤리문화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공단은 앞으로도 교육과 캠페인 등 AI 윤리실천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AI 활용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윤리적 위험을 예방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 삼전닉스가 끌어올린 코스피… 코스닥은 순손실에 '휘청'

**국내 상장사 3분기 실적 희비**
**유가증권시장 영업익 10.55%↑**
**삼전닉스가 전체의 75.17% 차지**

**코스닥 매출 9.01%·영업익 17.35%↓**
**순손실 1.3조 기록하며 적자 전환**
**흑자 기업 277곳 줄어 527곳 그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코스피 상장사의 3분기 영업이익을 이끈 가운데, 코스닥 상장사들의 순이익 합계는 적자로 돌아섰다. /AI로 생성한 이미지

국내 상장사들의 올해 3분기 실적이 시장에 따라 엇갈렸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코스피 영업이익을 끌어올린 반면 코스닥 기업들의 순이익 합계는 적자로 돌아섰다. 다만 두 시장 모두 전분기보다 순이익 흑자 기업이 크게 줄었다. 합산 실적의 성장세와 개별 기업의 성적표 사이에 간극이 벌어진 셈이다.

18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가 발표한 12월 결산법인 3분기 실적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사 635곳의 연결 기준 3분기 영업이익은 253조7842억원으로 전분기보다 10.55% 증가했다.

반면 순이익은 169조6093억원으로 30.41% 감소했다. 코스닥 상장사 1254곳은 영업이익이 4조3897억원으로 17.35% 줄었고, 순이익은 2분기 5조3037억원 흑자에서 3분기 1조2875억원 적자로 전환했다.

**◆코스피 영업익 75%가 삼전닉스 몫 … 흑자 기업↓**

코스피 영업이익 증가를 이끈 것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였다. 두 기업의 3분기 연결 영업이익은 합계 190조7743억원으로, 분석 대상 전체 영업이익의 75.17%를 차지했다. 매출액은 299조8687억원으로 전체의 28.02%였다. 두 기업을 제외한 633곳의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보다 41.90% 늘어난 63조99억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순이익 흑자 기업은 2분기 520곳에서 3분기 373곳으로 147곳 줄었다. 전체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1.89%에서 58.74%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 185곳이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섰고,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한 기업은 38곳이었다.

코스피 상장사의 매출액은 전분기보다 2.32%, 영업이익은 10.55% 늘었지만 순이익은 30.41% 감소했다. 영업이익률이 21.95%에서 23.72%로 높아지는 동안 순이익률은 23.31%에서 15.85%로 떨어졌다. 연결 기준 20개 업종 가운데 16개 업종의 순이익이 전분기보다 줄었다.

올해 1~9월 누적 실적은 큰 폭으로 개선됐다. 코스피 상장사들의 연결 기준 누적 영업이익은 638조282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4.39%, 순이익은 553조8332억원으로 272.65% 증가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해도 누적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63.94%, 94.86% 늘었다.

**◆코스닥 361곳 적자 전환… 분기 순이익 합계도 줄어**

코스닥은 3분기 매출액부터 전분기보다 9.01% 줄어든 89조8088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17.35% 감소한 4조3897억원이었다. 순이익은 1조2875억원의 손실을 내며 적자로 돌아섰다.

기업별로도 흑자 기업이 급감했다. 3분기 순이익 흑자 기업은 527곳으로 2분기 804곳보다 277곳 줄었다. 흑자 기업 비중은 64.11%에서 42.03%로 낮아졌고, 2분기 흑자였던 기업 가운데 361곳이 3분기 적자로 전환했다.

코스닥 역시 1~9월 누적 기준으로는 성장세를 보였다. 연결 기준 누적 매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25.26% 증가한 272조7233억원, 영업이익은 49.59% 늘어난 13조8681억원이었다. 순이익도 47.74% 증가한 8조3602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이 같은 누적 실적 개선에도 3분기 들어 매출과 영업이익이 동시에 감소하고 순손실이 발생했다.

재무 상태는 두 시장에서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 9월 말 연결 기준 부채비율은 코스피가 88.99%로 지난해 말보다 13.57%포인트 낮아진 반면, 코스닥은 124.04%로 10.15%포인트 높아졌다. 이번 합산 실적 분석에서는 금융업과 분할·합병 법인 등 비교가 어려운 기업을 제외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 닻 올리는 토큰증권 시장… 핵심 상품 발행은 입법에 '발목'

**전자증권법 등 내년 2월 4일 시행**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근거 미비**
**여야 발의 법안 2건 국회서 표류**
**금융당국, 연내 통과 위해 노력**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토큰증권시대 개막과 자본시장의 새로운 가능성'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김아영 기자

내년 2월 토큰증권 시장 개막을 앞두고 시장에 올릴 상품의 법적 근거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블록체인 기반 증권의 발행·유통 인프라는 갖춰졌지만, 부동산·특허·저작권처럼 금전이 아닌 자산을 담은 신탁수익증권의 정식 발행 근거가 아직 국회에 머물러 있어서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은 야당의 동의를 얻는 게 관건이라며 업계에 협조를 당부했고, 금융당국은 연내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8일 서울 여의도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토큰증권시대 개막과 자본시장의 새로운 가능성' 세미나에서 신범준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토큰증권협의회장은 "토큰증권 시장은 내년 2월 열리지만, 그 시장의 중심이 될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정식 발행 근거는 아직 국회에 머물러 있다"며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이제 관건은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박상혁·이강일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했다.

토큰증권 도입을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찬성 210표, 반대 0표로 통과해 내년 2월 4일 시행된다. 하지만 현행 자본시장법은 신탁업자가 금전을 맡았을 때만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동산이나 지식재산권을 담으려면 자산유동화법을 거쳐야 하는데, 이 법은 자산보유자를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회사·상장사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우량 자산을 갖고 있어도 요건을 갖춘 기관이 먼저 자산을 사들인 뒤 신탁하는 2단계 구조를 거쳐야 한다.

시장은 이미 위축되고 있다. 키움증권에 따르면 조각투자 발행 건수는 2024년 60건에서 지난해 50건, 올해 8월 중순까지 14건으로 줄었다. 발행금액도 2024년 272억원에서 올해 8월 중순까지 49억원에 그쳤다.

국회에는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2건이 계류돼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2024년 11월, 이강일 의원이 올해 9월 같은 취지로 각각 대표발의했지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실질 심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 의원은 "신탁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토큰증권으로 여러 가치를 담아 사업을 하기 용이해진다"면서도 "동료 의원, 그중에서도 야당 의원들의 동의 없이 통과시키기는 굉장히 어려운 법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이 사회에 적용되려면 의원들이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며 업계가 적극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번 달 정부안을 내겠다고 약속했다"며 "다음 주에는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연내 개정안 통과에 힘을 싣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정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사무관은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은 토큰증권 시장에 어떤 상품을 올릴지와 밀접하게 관련된 사안이라며, 담당 부서에서 올해 안에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투자자 보호가 가장 중요하다며, 투자자가 상품을 명확히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기초자산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투자자 투자 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탄력적으로 운영할지 더 고민하겠다고 했다. /김아영 기자 aykim@

## 이지스, 고액자산가 부동산 투자 확대

**하나증권·딜로이트 안진과 맞손**
**대체투자부터 세무·재무 자문 협력**

이지스자산운용은 지난 17일 서울 영등포구 하나증권 본사에서 하나증권, 딜로이트 안진과 패밀리오피스·고액자산가 고객을 위한 부동산 투자 및 자산관리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제공해 온 부동산 등 대체투자 기회를 고액자산가로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3사는 투자상품 구조화부터 자산 매입·매각, 세무·재무 자문까지 종합적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하나증권은 패밀리오피스 고객 기반을 활용해 투자·매각 수요를 발굴하고 금융구조 설계를 지원한다. 이지스자산운용은 부동산 등 대체자산 발굴과 실사, 펀드·부동산투자회사(리츠) 구조화 및 운용을 맡는다. 딜로이트 안진은 자산 취득·처분과 상속·증여 등에 필요한 세무·재무 자문을 담당한다.

앞서 패밀리오피스 전담 조직을 신설한 이지스자산운용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부동산 개발·실물자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선주 등 투자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펀드 상품 공급을 넘어 고객 보유 자산의 매입·매각까지 협력 범위를 넓혀 장기적인 고객 관계를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조갑주 이지스자산운용 대표이사는 "이지스가 축적한 부동산 투자·운용 노하우에 하나증권의 고객 기반과 딜로이트 안진의 세무·재무 전문성을 더해 새로운 투자 기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김아영 기자 aykim@

## 김규빈 토스증권 대표 '사람 살리는 금융' 동참

김규빈 토스증권 대표가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과 금융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람 살리는 금융'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18일 토스증권에 따르면 김 대표는 신재욱·배광수 NH투자증권 대표이사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동참했다. 다음 참여자로는 박현철 부국증권 대표와 조병익 토스인슈어런스 대표를 지목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진행하는 이 캠페인은 지난 7월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을 시작으로 금융기관과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김 대표는 "'투자의 힘을 모두에게'라는 가치 아래 누구나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 업비트 '코인모으기' 누적 투자액 1조 돌파

**출시 2년 만에 국내 거래소 최초 달성**

업비트의 적립식 자동 매수 서비스 '코인모으기' 누적 투자액이 1조원을 넘어섰다.

18일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따르면 코인모으기 누적 투자액은 2024년 8월 출시 이후 약 2년 2개월 만에 1조원을 돌파했다. 두나무는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자동 매수 서비스 가운데 처음으로 누적 투자액 1조원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코인모으기는 이용자가 디지털자산과 투자 금액, 매수 주기를 설정하면 자동으로 매수하는 서비스다. 매수 시간은 하루 중 5분 단위로 지정할 수 있다.

두나무가 공개한 이용 현황을 보면 이용자들은 월평균 68만원을 투자했다. 매수 주기는 '매일'이 42%로 가장 많았고, '매주' 40.4%, '매월' 17.5% 순이었다. 전체 이용자의 50.5%는 서비스를 90일 이상 이용했다. 가장 오래 이용한 고객의 이용 기간은 807일이었다. 연령별 비중은 30대가 30.2%, 40대가 27%, 50대 이상이 28.1%였다. 매수 건수 기준으로는 비트코인이 전체의 56.5%를 차지했다.

두나무는 정해진 금액을 나눠 매수하는 방식이 가격 변동에 따라 한꺼번에 자금을 투입하는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기적으로 매수하더라도 디지털자산 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 가능성은 있다.

업비트 관계자는 "코인모으기는 투자자가 직접 설정한 금액과 주기에 따라 매수 시점을 분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라며 "이용자들이 자신의 계획에 맞춰 꾸준히 투자하는 방식에 호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 정부, 편의점 상비약 확대 추진… 약사회는 '안전성' 우려

**판매 품목 11개서 최대 20개 추진**
**소비자 편의 vs 의약품 안전성 충돌**
**편의점업계는 관리 부담 걱정**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안전상비의약품이 진열돼 있다. /뉴시스

정부가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품목 확대를 추진하면서 약사회와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정부는 심야·휴일 의약품 접근성 개선을 내세우지만 약사회는 안전 관리 강화가 우선이라고 반발한다. 편의점 업계는 매출 효과보다 관리 부담이 클 수 있다는 입장이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은 19일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회미래연구원과 한국소비자연맹, 의료·약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소비자 편의와 의약품 안전성을 논의한다. 국무조정실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주요 이해당사자인 대한약사회는 불참을 선언했고 편의점 업계도 공식 패널 명단에서 빠졌다. 약사회는 같은 날 국회에서 별도 기자회견을 열어 판매 확대 반대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측에서는 "이해당사자로서 이번 토론회에서 제외된 것"이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기존 판매제도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래소비자행동과 전국 판매업소 1050곳을 조사한 결과 97.2%에서 판매 준수사항 위반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판매자 등록증·주의사항 미게시, 판매 수량 제한 위반 등이 지적됐다. 약사회는 복약지도 없는 판매 확대가 오남용과 부작용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며 공공심야약국 확충과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기존 편의점망을 활용해 의약품 구매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실제 판매 중인 안전상비약을 현행 11개에서 최대 20개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약국과 편의점이 없는 무약촌에서는 일반 소매점 판매를 허용하도록 약사법 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12월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2012년 11월 도입된 안전상비약 제도는 해열진통제·감기약·소화제·파스 등 4개 효능군 13개 품목을 지정하고 있다. 이 중 2개는 생산 중단 등으로 판매되지 않아 실제 구매 가능한 품목은 11개다. 14년 동안 신규 품목 지정은 없었다.

이용 수요는 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4년 편의점 안전상비약 공급액은 555억원으로 2013년 154억원의 약 3.6배다. 공급액의 상당 부분은 타이레놀정 500mg(219억원)과 판콜에이내복액(163억원)에 집중돼 있다. 하지만 지사제와 일반 제산제 등은 편의점에서 살 수 없어 갑작스러운 설사나 속쓰림에 대응할 수 있는 품목은 부족하다.

소비자단체는 오남용 위험이 낮고 관리 가능한 품목이라면 판매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전국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기존 효능군 내 품목 확대에 95.0%, 신규 효능군 추가에 94.3%가 찬성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은 포장 단위와 표시 기준, 판매 수량 제한으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약사회는 소비자 선호가 안전성 검증을 대신할 수 없다고 맞선다.

농촌 접근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조사에서는 전국 82개 군 중 75개 군(91.5%)에서 일요일 영업약국이 확인됐다. 약국이 없는 275개 읍·면에서도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가 확인됐다. 다만 이 결과가 실제 휴일 이용 가능 여부나 주민 이동 거리를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편의점 업계는 신중하다. 판매 품목을 늘리면 소비자 방문과 다른 상품의 추가 구매를 유도할 수 있지만, 안전상비약 매출은 점포 전체 매출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점포마다 재고와 유통기한을 관리해야 하는 만큼 품목 확대에 따른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이유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매출이 높은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편의점 입장에서는 확대에 대해 뚜렷한 찬성도 반대도 없는 입장"이라면서 "품목이 확대될 경우 시민 편의가 커지는 만큼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 CJ제일제당, 천연 조미소재로 입지 넓힌다

**유럽 식품원료 박람회 참가**
**'테이스트엔리치' 신제품 공개**



CJ제일제당의 FiE 2026 박람회 부스 조감도.

CJ제일제당이 천연 조미소재 '테이스트엔리치(TasteNrich ᐧ)' 신제품을 출시하며 글로벌 시장 리더십 강화에 나섰다.

CJ제일제당은 '유럽 식품원료 박람회(FiE 2026)'에 참가해 신제품을 포함한 다양한 천연 조미소재 솔루션을 선보인다고 18일 밝혔다. FiE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규모의 식품 원료·첨가물 전문 박람회다. 17~19일 진행되는 올해 행사에는 약 1650개 이상의 기업과 2만7000여 명의 관람객이 모여 최신 업계 트렌드와 기술을 공유할 예정이다.

올해 FiE에서 CJ제일제당은 '맛과 영양 연구실(The Taste & Nutrition Lab)'을 콘셉트로 부스를 열고 신제품인 '테이스트엔리치 하모니 코쿠(TasteNrich ᐧ Harmony KOKU)'를 비롯, 천연 성분으로 식음료의 풍미를 증진시켜주는 여러 제품을 전시한다.

CJ제일제당은 부스를 '더 풍부한 맛(More Taste Zone)'과 '영양 강화(More Nutrition Zone)' 두개 존으로 나눠 맛과 영양을 위한 솔루션을 선보인다. '더 풍부한 맛' 존에서는 H&W(Health & Wellness) 트렌드에 맞춰 염분, 지방 등의 함량은 낮추면서도 제품의 풍미를 높여주는 클린라벨 소재들을, '영양 강화 존'은 다양한 라이프스타일과 건강 상태에 따른 영양 니즈를 채워주는 제품들을 전시한다. 특히 영양 강화 존에서는 기능성 흑삼 추출 원료 신제품도 선보일 예정이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많은 식음료 기업들이 맛을 유지하면서 보다 건강한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고민을 안고 있다"며, "FiE에서 선보일 다양한 조미·영양소재로 글로벌 고객들과 협업해 식품산업의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CJ제일제당은 '테이스트엔리치', '씨제이타이드(CJ TIDE)', '애드미(Add-Mi)' 등을 대표 제품으로 글로벌 식품 조미소재 시장을 선도해오고 있다. 특히, '테이스트엔리치'는 CJ제일제당의 미생물 발효 R&D 역량과 첨단 기술이 집약된 차세대 천연 조미소재로, 사탕수수 등 자연 유래 원료를 인공 첨가물 없이 발효시켜 생산한다. 이 제품을 식품에 적용하면 맛품질을 유지하면서도 나트륨이나 기타 첨가물 함량을 줄일 수 있다.

/이세경 기자 seilee@

# 윌비플레이, 잠실구장 마지막 매치 지원

**형지엘리트, 기념 굿즈 선봬**


윌비플레이 후원 유니폼을 착용한 전 야구선수 박정태(왼쪽), 전준호의 모습 /형지엘리트

형지엘리트의 스포츠 브랜드 '윌비플레이'가 잠실야구장의 마지막 특별 매치인 '잠실 더 라스트 이닝 by 르노'의 후원사로 참여해 선수단을 지원하고 현장 팝업 스토어를 운영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4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잠실 더 라스트 이닝 by 르노'는 1982년 개장 이후 수많은 경기가 펼쳐진 잠실구장의 철거를 앞두고 사단법인 일구회와 한국프로야구 은퇴선수협회가 팬들을 위해 마련한 레전드 매치다. 이날 경기 입장권은 예매 시작과 동시에 매진됐으며, 관중들이 구장을 찾아 경기를 관람했다.

형지엘리트 윌비플레이는 이번 경기에 공식 후원사로 참여해 출전 선수단 60여 명에게 유니폼과 의류, 스포츠 용품 등을 지원했다.

경기에는 박철순, 이만수, 송진우, 이종범, 이승엽, 이대호 등 각 시대를 대표하는 프로야구 선수들이 출전했다. 선수들은 김성근·강병철 감독이 이끄는 동군과 김응용·김인식 감독이 지휘하는 서군으로 나뉘어 윌비플레이가 맞춤 제작한 유니폼을 착용하고 경기를 펼쳤다.

윌비플레이는 쌀쌀한 날씨 속에서 체온 유지를 돕는 점퍼, 풀오버, 기능성 언더셔츠 등 의류와 야구 가드, 배팅장갑 등 전문 용품을 제공했다.

현장에서는 윌비플레이 팝업스토어도 운영됐다. 잠실구장의 44년 역사와 마지막 경기를 기념하기 위해 특별 제작한 '잠실 더 라스트 이닝' 공식 기념 상품으로 니트 머플러와 기념구를 비롯해 동·서군 선수별 유니폼 키링, 키캡 키링, 아크릴 명찰 등 다양한 굿즈를 판매했다. /김서현 기자

# "카페 인기 메뉴, 편의점서 만나보세요"

**이마트24, 차음료 라인업 확대**

이마트24가 자체브랜드(PB) '옐로우(ye!low)'를 통해 차음료 신상품 2종을 출시하며 상품군 확대에 나선다.

이마트24는 카페 인기 메뉴인 자몽허니 블랙티를 편의점 음료로 구현한 '자허블T'와 배·도라지를 활용한 '배도담'을 19일부터 순차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존 '옐로우' RTD(즉석음용) 차음료 6종에 신상품 2종을 추가해 총 8종으로 라인업을 확대했다.

최근 건강한 즐거움을 추구하는 '헬시 플레저(Healthy Pleasure)'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건강한 원재료와 다양한 맛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차음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이마트24의 올해 1~10월 기능성 차음료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8.8% 증가했다. 이마트24는 이러한 수요에 맞춰 차음료 신상품을 출시한다.

오는 19일 출시하는 '자허블T펫280ml'는 자몽의 상큼함과 꿀의 달콤함, 블랙티의 풍미를 조합한 상품이다. 카페에서 즐기던 자몽허니블랙티를 편의점에서도 간편하게 마실 수 있도록 기획했다.



이마트24는 자체브랜드(Private Label) '옐로우(ye!low)'를 통해 '자허블T'와 '배도담'을 이달 19일부터 순차 출시한다. /이마트24

오는 26일에는 '배도담병180ml'를 선보인다.

/김서현 기자

# 올레샷 열풍에 GS샵, 고급 올리브유 강화

**1~10월 올리브유 누적 주문액 80억**

GS샵이 올리브유 판매 호조에 힘입어 프리미엄 올리브유 상품 편성을 확대하고 관련 상품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최근 '올레샷(올리브유+레몬샷)' 열풍에 이어 계란이나 아이스크림에 올리브유를 곁들여 먹는 등 올리브유로 음식에 풍미를 더하는 레시피가 인기를 끌면서 관련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GS샵의 올해 1~10월 올리브유 상품 누적 주문액은 약 8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2% 증가했으며, 방송 편성도 전년 대비 2배 이상 확대됐다.

프리미엄 올리브유 판매도 증가했다. 올해 GS샵에서 선보인 스페인산 '오로델 데시에르토 올리브유'는 방송 2회 만에 약 10억원의 주문액을 기록했다.

이에 GS샵은 오는 20일 오후 8시 35분 TV홈쇼핑 '소유진쇼'에서 프리미엄 올리브오일 '이야이야앤프렌즈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오일'을 단독 구성으로 선보인다. 방송 중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오일 500ml 3병과 올리브오일 스틱(15포) 4박스, 전용 샷잔 1개, 쇼핑백 1개를 한 세트로 구성해 판매한다. /김서현 기자



Pianist 강충모(북일1회)



Pianist 이혜전(특별초청)



Cello 유지연(북일어고4회)



Trumpet 유병엽(북일5회)



Saxophone 홍순달(북일7회)

2026.12.11.Fri

2026.12.11.(Fri) pm7:00

50년의 시간, 클래식과 재즈로 잇다

동행(同行)의 저울도해

KWANGLIM ARTS CENTER
JANGCHEON Hall

pm7:00

# INVITATION



**[ 초대의 글 ]**

존경하는 북일 동문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올해 개교 50주년을 맞아,
지나온 반세기를 축하하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개교 50주년 기념 송년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북일의 명예를 빛내주신 동문 여러분을 모시고
따뜻한 정을 나누며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부디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고,
모교의 더 큰 미래를 함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6대 북일고재경총동문회장 황규하 올림

- **일시 : 2026년 12월 11일(금) 7:00~**
- **장소 : 광림아트센터 장천홀**
  **(압구정로22길 21, 압구정역 4번출구)**
- **주최 : 북일고 재경총동문회**
- **주관 : 사단법인 국제재즈교류협회**
- **후원 : 북일고 총동문회, 북일여고 총동문회**
- **사회자 : 편상욱 앵커(북일9회, SBS 보도본부 부국장)**
  **이문정(북일여고2회, 전 MBC기상캐스터)**
- **입장료 : 동문 사랑 후원 티켓 1인당 5만 원**
  ※본 입장료는 북일동문의 발전과 풍성한 행사를 위해
  전액 '동문 발전 후원금'으로 소중히 사용됩니다.
- **문의 : 010-8988-4973, 010-3336-8577**

# 韓-美 잇는 '이중거점' 완성… "고객사 맞춤형 솔루션 제공"

**롯데바이오로직스 송도시대**

**송도 제1공장, 연면적 약 9.9만㎡**
**1.5만 리터 바이오리액터 8기 등**
**생산능력 총 16만 리터로 확대**
**자율주행 로봇 등 생산 효율↑**
**연간 약 7000억 매출 창출 전망**



18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1공장 준공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박제임스 롯데바이오로직스 대표가 인사하고 있다. /롯데바이오로직스.

롯데바이오로직스가 2022년 법인 설립 후 미국 시러큐스 공장 인수를 거쳐 국내 자체 시설 준공에 이르기까지, 단 4년 만에 글로벌 수준의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 기반을 다지며 본격적인 송도 시대 막을 올렸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18일 오후 2시 인천 송도 제1공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장기 성장 전략과 청사진을 전격 발표했다. 이번 공장은 연면적 약 9만 9558㎡ 규모이며 1만 5000리터 규모의 스테인리스 스틸 바이오리액터 8기를 포함해 12만 리터의 생산능력을 갖췄다. 기존 미국 시러큐스 공장 4만 리터와 합산하면 롯데바이오로직스 생산 능력은 총 16만 리터다.

이날 발표에 나선 정우청 EPC부문장은 송도 제1공장의 차별화된 강점을 설명했다. 정 부문장은 "송도 바이오 캠퍼스는 업계 최고 수준의 생산 인프라와 IT 환경을 연동해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했다"며 "특히 1만 5000리터 대형 배양기 외에도 3000리터 배양기를 함께 구축해 고부가가치 하이 티어 제품과 스탠다드 제품의 병행 생산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한 샘플 이송 자동화 시스템, 6000셀 규모의 자동화 창고 등을 도입해 데이터 무결성과 품질을 강화했다.

실행 속도 측면에서도 성과를 거뒀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부속동 임시 사용승인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밸리데이션 착수 시점을 앞당겼고, 글로벌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에 부합하는 준비 단계를 당초 목표보다 6개월 단축했다.

또 공사 기간 동안 연인원 약 99만 명이 투입된 데 이어 향후 2·3공장 건설이 완료되면 총 3만 7000명의 고용 창출 효과와 7조 6000억원 규모의 생산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전지원 전략기획부문장은 후발주자로서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수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핵심 전략을 제시했다. 미국 내 중국계 바이오 기업 제재, 의약품 관세 부과 압박 등이 거세지는 가운데, 한국 송도와 미국 시러큐스를 잇는 '이중 거점'이 롯데바이오로직스만의 무기다.

전 부문장은 "시러큐스 공장의 검증된 품질 시스템과 인적 역량을 송도에 이식해 양 거점 간 교차 기술 이전이 가능하다"며 "미국 현지 생산에 따른 관세 혜택과 공급망 다변화 요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항체·약물 접합체(ADC) 통합 생산, 일본 제약사 네트워크 연계, 바이오시밀러 시장 공략 등 선택과 집중 전략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오는 2027년 송도 1공장을 가동하면 연간 약 7000억원 규모의 매출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고객사 실사와 규제기관 GMP 실사를 준비 중이다. 향후 제2·3공장 사업 확장을 지속해 2030년 매출 1조원 이상을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송도 제1공장의 첫 매출은 2027년부터 발생하지만, 본격적인 상업 생산, 수익성 개선,흑자 전환은 2028년부터 가시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술이전료와 규제기관 승인용 시생산 물량을 통해 2027년부터 매출 인식이 시작되나, 규제기관의 최종 승인을 득하는 리드타임을 감안하면 2028년이 본격적인 상업 가동 원년이 된다는 설명이다. 2·3공장 착공 역시 향후 수주 파이프라인과 1공장 가동률 추이를 보며 탄력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대형 CDMO와 경쟁하는 구도에 대해서는 후발주자만의 유연성을 앞세우고 있다. 전지원 부문장은 "규모의 경제를 이룬 대형 CDMO는 운영 프레임이 고정돼 개별 고객사의 세밀한 요구를 맞추는 데 한계가 있다"며 "롯데바이오로직스는 고객사의 파이프라인과 페인포인트(고충)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가장 빠르게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파트너십으로 승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 GC녹십자엠에스, 감염병 진단 라인업 확대

**한타바이러스 진단키트 수출허가**
**해외 진단시장에 입체적 공급 전략**
**뎅기열, 말라리아 등 총 9종 완비**

체외진단 및 혈액투석제 제조 전문기업 GC녹십자엠에스가 다양한 글로벌 방역·의료 환경에 대응하는 감염병 진단 제품군을 구축하고 해외 진단시장 매출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GC녹십자엠에스는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한타바이러스' 신속진단 키트와 분자진단 키트 수출허가를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GC녹십자엠에스는 검사 인프라와 의료 환경이 상이한 해외 각국의 방역 수요에 폭넓게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장에서 신속진단 키트로 빠른 1차 선별을 진행하고, 대형 병원이나 전문 검사기관에서는 분자진단 키트로 정밀 확진을 수행하는 등 입체적인 공급 전략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GC녹십자엠에스의 한타바이러스 신속·분자진단 키트.

특히 기존 효소면역측정법(ELISA) 기반 연구용 진단시약에 신속진단과 분자진단 제품까지 더해 한타바이러스 진단 제품군을 완성했다.

지난달 30일 면역반응을 이용해 단시간 내 감염 여부를 판별하는 신속진단 키트의 수출허가를 받은 데 이어, 이달 12일에는 중합효소연쇄반응(PCR) 기술로 바이러스 특정 유전자를 직접 검출하는 분자진단 키트의 수출허가를 추가로 확보했다.

이와 함께 GC녹십자엠에스는 기존 ▲뎅기열 진단시약 4종 ▲치쿤구니아 진단시약 1종 ▲엠폭스 바이러스 진단시약 1종 등 수출용 6종과 ▲말라리아 진단시약 내수용 1종 등 총 7종의 감염병 진단제품 허가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한타바이러스 신속·분자진단 키트 2종까지 더해 면역진단과 분자진단을 아우르는 감염병 진단 포트폴리오를 총 9종으로 확대했다.

GC녹십자엠에스 관계자는 "이번 수출 허가로 연구용 시약부터 신속진단, PCR 분자진단까지 한타바이러스 진단 라인업을 완비했다"며 "축적된 제품화 역량과 글로벌 영업망을 결합해 해외 감염병 진단 시장에서의 입지와 매출 성장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 SK바이오팜, 英서 중장기 성장전략 제시

**'제프리스 글로벌 헬스케어 컨퍼런스'**
**세노바메이트 성장 성과 등 공유**

SK바이오팜이 16~19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리고 있는 '제프리스 글로벌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석해 세노바메이트의 지속적인 성장과 신규 제품 및 파이프라인 확대를 기반으로 한 중장기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제프리스 글로벌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글로벌 주요 빅파마와 기관투자자들이 매년 참석해 제약·바이오 산업의 주요 동향과 기업의 성장 전략을 공유하는 유럽 최대 규모의 헬스케어 컨퍼런스다. SK바이오팜은 올해로 4년 연속 행사에 참석해 글로벌 투자자 및 업계 관계자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고,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현장 발표를 진행했다.

이동훈 SK바이오팜 사장은 17일 현장 발표를 통해 세노바메이트의 성장 성과를 공유하고, 글로벌 시장 확대와 신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을 소개했다. 세노바메이트(미국 제품명: 엑스코프리®)는 미국 시장에서 처방 확대를 이어가며 올해 9월 기준 전 세계 누적 처방 환자 수 30만 명을 넘어섰다.

SK바이오팜은 세노바메이트의 중장기 성장을 위해 라이프사이클 관리(LCM)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기존 성인 부분발작(FOS) 적응증에서 나아가 만 12세 이상 일차성 전신 강직-간대발작(PGTC) 및 소아 부분발작 환자군으로의 적응증·연령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동훈 사장은 AI를 활용해 신약 개발과 전사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는 'AI-네이티브 오퍼레이션(Native Operation)' 전략을 소개했다. SK바이오팜은 AI 기반 신약 후보물질 발굴과 전사 운영 최적화, 환자 질병 관리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세경 기자 seilee@

# "화장품 개발 초기부터 피부 안전성 검증"

**한국콜마-한국화학연구원 '맞손'**
**AI 기반 피부영향 예측기술 공동개발**

한국콜마가 시제품 제작 이전인 처방 설계 단계에서 피부 반응과 화장품 성분 흡수율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한다. 신제품 개발 기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국가별 안전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둔다.

한국콜마는 지난 17일 한국화학연구원과 'AI 기반 피부영향 예측기술 공동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화장품 설계 단계부터 피부 안전성을 사전에 평가할 수 있는 전용 인공지능(AI) 모델을 공동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양 기관은 ▲AI 기반 피부영향 예측기술 공동연구 및 기술교류 ▲예측기술의 타당성 및 성능 검토 ▲대표 성분과 처방 기반 예측모델 실증·검증 등에 긴밀히 협력한다.

특히 공동개발 AI 모델은 단일 원료뿐 아니라 여러 성분이 복합적으로 배합된 '처방 단위'의 피부 반응과 흡수율까지 동시에 예측한다. 기술이 상용화되면 시제품을 만들지 않고도 원료 배합 정보만으로 피부 자극 여부와 성분 흡수 정도를 미리 가늠할 수 있게 된다.

또 유기 자외선차단 성분, 방부제, 계면활성제 등 국가별로 안전 규제 기준이 까다로운 원료가 포함된 처방도 개발 초기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다.

역할 분담 측면에서 한국화학연구원은 그간 축적해 온 AI 기반 단일물질·혼합독성 예측기술을 바탕으로 핵심 알고리



한국콜마-한국화학연구원 업무협약식에서 (왼쪽부터)문병석 콜마홀딩스 기술연구원장과 신석민 한국화학연구원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즘과 모델을 구축한다. 한국콜마는 방대한 실제 원료 및 제품 데이터를 활용해 기술의 현장 적용성과 상용화 가능성을 검증한다.

한국콜마는 기술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자사 연구개발(R&D) 프로세스에 즉시 적용할 계획이다. /이청하 기자

# HLB이노베이션, 당일 투여 'CAR-T' 도입

**'PACK-IT' 기술로 체내 생성**

HLB이노베이션의 미국 자회사 베리스모 테라퓨틱스가 당일 투여가 가능한 기성품 형태의 차세대 CAR-T 상용화에 속도를 낸다.

베리스모 테라퓨틱스는 미국 스탠퍼드 의과대학으로부터 환자 체내에서 직접 KIR-CAR-T 세포를 생성할 수 있는 'PACK-IT' 플랫폼 기술을 도입했다고 18일 밝혔다. 스탠퍼드 의대 소아과·내과 교수이자 스탠퍼드 암 세포치료센터 초대 소장인 크리스탈 맥컬 박사 연구팀이 개발한 차세대 CAR-T 세포 엔지니어링 원천 기술을 확보한 것이다.

베리스모가 도입한 PACK-IT 플랫폼은 T세포를 정밀 표적하는 렌티바이러스 입자를 활용해 CAR 유전자를 T세포에 직접 전달하는 기술이다. 환자 체내에서 즉시 T세포를 재프로그래밍하는 생체 내 방식은 물론, 기존 체외 제조 공정 역시 대폭 간소화할 수 있는 범용성을 갖췄다.

현재 상용화된 CAR-T 치료제는 환자 혈액에서 T세포를 추출한 뒤 별도 제조시설에서 유전자 조작과 증식, 품질검사를 거쳐 다시 환자에게 주입하는 체외 방식으로 생산된다. 실제로 이 과정에만 통상 수주가 소요되고 제조 공정과 설비 비용은 막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리스모는 이번에 도입한 기술을 자사의 핵심 자산인 'KIR-CAR' 플랫폼에 접목한다는 방침이다. 당일 체내 투여 방식으로 대체함으로써 치료 기간과 생산 원가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글로벌 항암 치료 시장에서 압도적인 상업화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이청하 기자

# 최태원 "사회문제 해결에 보상 필요… 참여 이끌어야"

**세계행정학회 서울대회서 기조연설**
**10여년간 진행해온 'SPC 실험' 소개**
**사회적가치 측정·보상으로 도입 확대**
**AI 활용 방안 제시… 공동연구 요청도**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6 세계행정학회(IIAS) 서울대회' 개회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일이 수익을 내는 사업이 되면 자본이 따라 들어옵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2026 세계행정학회(IIAS) 서울대회'에서 "사회문제 해결에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 재정과 기부만으로는 복잡해지는 사회문제와 늘어나는 대응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경제적 보상을 통해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취지다.

최 회장은 구체적인 사례로 SK가 10여년간 진행해 온 사회성과인센티브(SPC) 실험을 소개했다. 사회적 기업이 창출한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해 현금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모델이다.

실험의 핵심은 '측정'과 '보상'이었다. 초기에는 회계팀이 사회적 기업을 직접 방문해 사회적 가치 측정 방법을 마련했다. 창출한 가치의 약 4분의 1을 인센티브로 지급한 경우와 지급하지 않은 경우를 비교해 참여자의 행동과 성과 차이를 살폈다.

대한상의가 제시한 지난 10년간 SPC 참여 기업 468곳의 분석에서는 인센티브를 받은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 규모가 미지급 기업보다 평균 약 3배 높았다. 평균 매출도 34% 높게 나타났다. 고용·생산 유발효과는 기존 보조금 방식의 1.5~2배 수준으로 집계됐다.

최 회장은 "기존 정부 지원은 보조금 형태로 먼저 지급했지만, 저희는 성과를 사후에 측정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며 "사회적 영역에도 자본주의적 인센티브를 도입하면 같은 돈과 같은 시간으로 훨씬 더 많은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문제 해결이 수익을 내는 사업으로 자리 잡으면 투자자금이 유입돼 혁신도 빨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민간의 성과 보상 실험은 공공 영역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대한상의 자료에 따르면 서울 등 지방정부가 사회적 성과 기반 보상을 도입했고 제주와 전북은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전국 단위로 적용한다. 행정안전부도 내년 성과기반보상 체계를 접목할 예정이다.

최 회장은 성과 보상체계의 확산을 위해 측정·평가 비용을 줄일 수단으로 인공지능(AI)을 제시했다. 지원 대상과 적절한 서비스를 파악하는 데 드는 행정·거래 비용을 낮추고 투입 자원에 따른 사회적 가치도 예측해 사업 선택과 자원 배분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를 지속 가능한 체계로 정착시키기 위해 정부·기업·시민사회·학계가 역할과 부담을 나눠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계행정학계에는 국가별 적용 방안과 효과를 공동으로 연구·검증해 달라고 요청했다. 자신이 이사장을 맡은 사회적가치연구원에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한 협력도 제안했다. 최 회장은 "무엇이 효과가 있고 어떻게 하면 더 검증할 수 있을지 공동으로 연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 토요타자동차, 19.5톤 '김장나눔 행사'

한국토요타자동차는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와 '2026 토요타·렉서스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지난 17일 전국 11개 복지기관에서 한국토요타자동차와 토요타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전국 토요타·렉서스 공식 딜러사 임직원 등 350여 명이 총 19.5톤의 김장김치를 담가 이웃에게 전달했다. /한국토요타자동차




### 소진공, 신한카드·KCB와 AI 지원 강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한카드,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함께 소상공인을 위한 AI 서비스를 강화한다.

소진공은 지난 17일 서울 중구 신한카드 본사에서 '소상공인365 상권 데이터'를 AI 서비스에 활용하기 위해 신한카드·KCB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현대차, 어촌 맞춤형 모빌리티 개발

ST1차량 개발… 주민 편의개선 나서
이동형 매장·해녀 온열쉼터 등 검토

현대자동차가 어촌 수요에 맞춘 차량과 생활서비스를 개발해 주민들의 이동 편의와 생활 여건 개선에 나선다.

현대차는 한국어촌어항공단과 'Co:어촌'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협약식은 지난 17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렸다.

이번 프로젝트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생활서비스 부족 등 어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민관 협력사업이다. 양 기관은 지역별 이동·편의·안전 관련 수요를 발굴하고 이에 맞는 모빌리티 서비스를 공동 기획해 현장에서 실증한다.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참여 지역 발굴과 실증 지원을 맡는다. 현대차는 지역 수요에 맞춰 ST1 차량을 개발하고 운영자 교육과 현장 유지·보수를 지원한다. ST1은 운전실과 차량 뼈대를 갖춘 기본 구조에 용도별 시설을 얹어 활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플랫폼 차량이다. 현대차는 ST1을 물류용 차량뿐 아니라 경찰 작전차와 응급 구조차, 캠핑카 등 다양한 용도로 개발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왼쪽부터) 한국어촌어항공단 홍종욱 이사장과 현대자동차 국내판매사업부장 염재섭 상무가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서비스 모델로는 간편식과 숙박 편의용품을 판매하는 이동형 팝업스토어, 조업 후 휴식과 건강관리를 돕는 해녀 케어 온열쉼터 등을 검토하고 있다. 어촌 관광을 위한 차박 서비스와 마을 투어버스도 후보에 포함됐다.

대상 지역과 사업이 정해지면 맞춤형 차량을 투입해 시범 운영한다. 실제 이용자와 운영 주체가 참여해 이용 편의성과 지역 현안 개선 효과, 지속 운영 가능성을 검증한다. /이승혁 기자 sh95@

# LG전자, '인간공학디자인상' 최고상 수상

'시스템 아이어닝' 최고상 등 4관왕

LG전자의 올인원 의류 관리기기 'LG 시스템 아이어닝'이 대한인간공학회가 주관하는 인간공학디자인상에서 최고상을 받았다.

LG전자는 '2026 인간공학디자인상'에서 시스템 아이어닝이 최고상(Grand Prix)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대한인간공학회는 제품의 사용 편의성과 효율성, 안전성, 감성 품질 등을 종합 평가해 수상작을 선정한다.

LG 시스템 아이어닝은 스팀 다리미와 핸디 스티머, 스타일링 보드를 결합한 제품이다. 한국인의 인체 치수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키와 팔꿈치 높이에 맞춰 다림판 높이를 전동으로 10단계 조절할 수 있다. 면과 울, 레이온 등 옷감 종류에 따라 스팀 온도를 자동으로 설정하는 7개 코스도 지원한다.


(왼쪽부터)LG AI 오브제컬렉션 식기세척기(최고 제품상), LG 시스템 아이어닝(최고상) ,LG 이페이퍼 디스플레이(최고 혁신상). / LG전자

LG전자는 이번 시상식에서 최고상을 포함해 총 4개 제품이 수상하며 지난 2024년부터 3년 연속 기업 중 최다 수상 기록을 세웠다. /차현정 기자 hyeon@




### iM금융, 제주 어르신 금융교육 등 지원

iM금융그룹 iM사회공헌재단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소재 제주시니어클럽을 방문하고 '지역 어르신 대상 금융교육 및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신용필 iM금융지주 그룹가치경영총괄 전무(왼쪽 두번째) 및 관계자들이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iM금융그룹




### SK인텔릭스, 안전관리 국무총리 표창

SK인텔릭스가 18일 '2026 제품안전의 날'을 맞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SK인텔릭스는 AI 웰니스 로봇 '나무엑스(NAMUHX) A1'의 설계·개발부터 품질 검증, 운영 등 제품 전 생애주기에 걸친 선제적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SK인텔릭스

# '장애경제인대회' 개최… 모범·유공자 포상

중기부, 모범표창 등 42점 포상 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서울 여의도 FKI타워 그랜드볼룸에서 '제21회 전국장애경제인대회'를 열고 장애인기업 발전에 기여한 모범 장애경제인과 유공자를 포상했다.

18일 중기부에 따르면 전국장애경제인대회는 장애인기업의 성과를 알리고 장애경제인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2006년부터 개최해 왔다.

올해 주제는 '도전하는 장애경제인, 성장하는 대한민국'이다.

이날 행사에선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생활 향상에 기여한 모범 장애경제인과 장애인 창업경진대회 수상자, 관계 유공자 등에게 중기부 장관 표창 23점, 상장 3점, 지식재산처장 표창 5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표창 3점, 상장 8점 등 총 42점의 포상이 수여됐다.

모범 장애경제인 표창을 받은 도서출판 점자 김동복 대표는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읽을 수 있는 점자·묵자 혼용 도서와 큰 글자 도서 등 배리어프리 도서를 출판·보급해 왔다. /김승호 기자 bada@

## 애경산업
# 글로벌 ESG 평가 '실버'

애경산업이 국내에 이어 글로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서도 첫 진입 만에 상위권 성적을 거둬 글로벌 뷰티 시장 내 공급망 경쟁력과 대외 신뢰도를 높였다. 애경산업은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평가기관 에코바디스의 ESG 평가에서 '실버' 메달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에코바디스는 지난 2007년 프랑스에서 설립된 국제 ESG 평가기관이다. 올해 처음 에코바디스 평가에 참여한 애경산업은 전체 평가 대상 기업 중 상위 15% 이내에 해당하는 실버 등급을 받았다.

/이청하 기자 mlee2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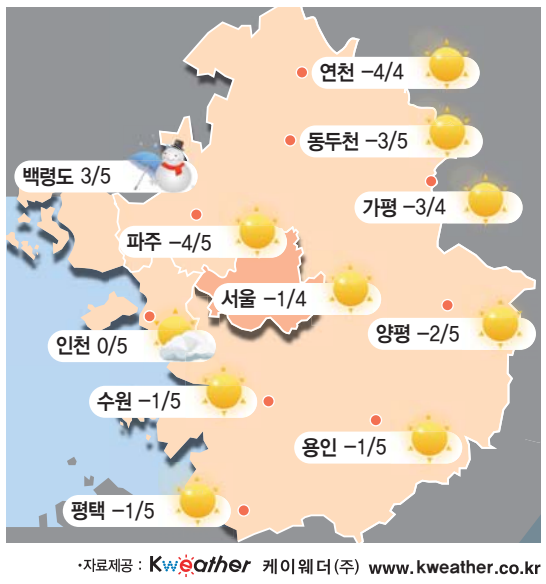
## 오늘의 날씨

해뜸 / 07:16 | 해짐 / 17:19

11월
19일 (木)
음력 : 10월 11일

수도권 날씨
-1 ~ 4℃

| | |
|---|---|
| 운동 지수 | |
| 빨래 지수 | |
| 세차 지수 | |
| 외출 지수 | |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인 사** ◆EBS◇부서장△감사실장 송춘실

◆지식재산처◇과장급 승진△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장 이상윤△지식재산등록과장 강성헌△화학식품상표심사과장 박종필△식품생물자원심사과장 김철호△바이오의약심사팀장 송현정△특허심판원 심판장 이창용

**부 음** ▲안종남씨 별세, 최남순씨 남편상, 안홍석(신안자동차정비 검사과장)·재홍(보성고 교사)·서진(NBS투데이 팀장)씨 부친상, 오승희(농협 곡성군지부 지점장)·양선아(한겨레 문화스포츠부 텍스트팀장)씨 시부상 = 17일 오후 7시40분, 광주남문장례식장, 발인 19일 오전 10시30분, 062-675-5000.

# 미래모빌리티 강국, '안전기준' 수출을



하 성 용의 스마트카 'TALK'

세계 자동차산업의 경쟁 질서가 바뀌고 있다. 전기차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도심항공교통(UAM)이 인공지능(AI)·데이터와 결합하면서 경쟁의 중심은 '누가 더 좋은 이동수단을 만드는가'에서 '누가 더 안전한 이동체계와 국제적 규칙을 만드는가'로 이동하고 있다.

한국은 자동차·배터리·반도체·통신에서 세계적인 제조 경쟁력을 갖고 있다. 정부도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유상운송 특례, 임시운행허가, 안전기준 특례와 대규모 실증도시 등을 통해 제도적 장벽을 지속적으로 낮춰왔다. 이제 필요한 것은 이러한 기술과 실증의 성과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안전기준과 표준으로 전환하는 전략이다.

미래 모빌리티에서 안전기준과 표준은 더 이상 산업 발전 이후에 따라오는 행정절차가 아니다. 특히 자율주행은 기존 자동차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과거에는 제동거리와 충돌안전성처럼 차량의 물리적 성능을 시험하면 됐다. 그러나 AI가 인간을 대신해 인지하고 판단하며 운전하는 시대에는 "잘 달리는가"를 넘어 "왜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를 객관적인 증거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국제사회도 움직이고 있다.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 산하 WP.29와 GRVA에서는 자율주행시스템(ADS)에 관한 국제 규정과 글로벌 기술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평가 역시 한 번의 실차시험을 넘어 시나리오, 시뮬레이션, 시험장·실도로 검증, 개발과정 감사, 운행 중 모니터링을 결합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SDV는 문제를 한 단계 더 복잡하게 만든다. 자동차가 출고된 이후에도 OTA를 통해 소프트웨어와 AI가 계속 바뀌기 때문이다. 오늘 안전하다고 인증받은 자동차가 내일 업데이트 이후에도 같은 수준의 안전성을 유지하는지를 검증해야 한다. 사이버보안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리, AI 변경에 따른 재검증까지 자동차 안전의 영역이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에 위기인 동시에 기회다. 미국은 AI와 플랫폼, 중국은 대규모 생산과 실도로 데이터를 무기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유럽은 UNECE와 연계된 안전·인증체계에서 영향력을 발휘해 왔다. 한국이 이들과 같은 방식으로 규모만을 경쟁해서는 승산이 충분하지 않다. 우리에게는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

한국의 복잡한 도로환경 자체를 세계적인 안전검증 자산으로 만들어야 한다. 보행자와 이륜차, 버스와 택시, 개인형 이동수단이 혼재하고 복잡한 교차로와 다양한 기상조건이 존재하는 한국의 도로는 자율주행 AI를 검증하는 고난도 시험환경이다. 여기에서 확보한 실제 운행데이터와 사고·위험 시나리오를 체계화해 'K-Scenario'와 'K-Safety Case'로 발전시키고 이를 UNECE와 ISO 등 국제표준 논의에 적극적으로 제안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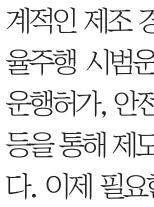
그러려면 국내 실증정책의 목표부터 달라져야 한다. 실증을 통해 어떤 안전 시나리오를 확보했고, 어떤 시험법을 개발했으며, 그것이 국제기준과 표준에 얼마나 반영됐는가를 국가적 성과지표로 관리해야 한다.

국가 차원의 '모빌리티안전관리 플랫폼' 구축도 필요하다. 한국형 시나리오 데이터베이스, 대규모 가상검증 환경, 실도로 시험, Safety Case, 사고·Near-miss 분석과 운행 중 모니터링을 하나로 연결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이미 자동차를 잘 만드는 나라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세계가 타는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에서, 세계가 믿고 따르는 '안전의 기준'을 만드는 나라로. 그것이 대한민국 미래 모빌리티가 세계적인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가장 확실하고 지속가능한 길이다.

/중부대 교수·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KASA) 회장

# '부정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명제가 참이 되려면



기자 수첩 서 예 진 〈정치부〉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날은 언제일까. 아마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을 꼽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주식시장이 한 시간 늦게 열리고, 직장인의 출근 시간도 조정된다. 영어 듣기평가 시간에는 비행기 이착륙까지 제한된다. 모든 응시생이 같은 날, 같은 문제를, 같은 조건에서 풀어야 해서다. 이 모든 조치는 시험을 '공정'하게 치르겠다는 사회적 '약속'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번 수능은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가운데 치러진다.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모씨가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인공지능(AI) 등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털어놓으면서다. 이후 온라인에는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거나 이번 수능에서 AI로 부정행위를 하겠다는 글까지 올라와 불안감을 키웠다.

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불러오면서 정부는 신속히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스마트기기 점검 전담 인력과 복도 감독관 등을 추가 배치하고, 안경과 시계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옷 단추엔 스티커를 붙일 예정이다.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제한 기간도 1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정부는 시험장에서 적발하지 못한 부정행위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했다. 성적을 사후 분석하고,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 AI 서비스 접속 기록까지 확인한다는 것이다. 시험장에서 들키지 않더라도 '부정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경고다.

하지만 이 경고가 우연이나 자백에 기대지 않으려면 정부가 이를 증명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더욱 뼈아픈 대목은 부정행위 자체뿐 아니라, 당사자가 자백하기 전까지 이를 잡아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부정행위는 조선시대 과거장에서도 일어났고, AI가 없던 과거 수능시험장에서도 일어났다. 시대가 변하면서 부정행위에 이용되는 도구와 수법도 진화했을 뿐이다. 중요한 건 시험을 '공정'하게 치르겠다는 사회적 '약속'을 복원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부정행위를 사전에 적발하고, 설령 놓치더라도 끝까지 찾아내 대가를 치르게 하는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부정행위자가 두려워해야 하는 건 시험감독관의 눈이 아니라, 이 제도여야 한다. 그래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다. '부정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명제를 참으로 만드는 일은 이제 정부에 달렸다.

/syj@metroseoul.co.kr

##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19일 (음 10월 11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쥐** **48년생** 집에 있음이 좋을 것입니다. **60년생** 길을 나섰지만 길가엔 위험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72년생** 좋을 때도 있는 것처럼 나쁠 때도 있는 법입니다. **84년생** 아직도 쉴 때가 아닙니다.

**소** **49년생** 자기 자신의 중심이 되야 합니다. **61년생** 친구들과의 갈등이 우려됩니다. **73년생** 선택한 것이 후회가 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세요. **85년생** 할 일이 아직도 태산입니다.

**호랑이** **50년생** 불분명한 행동은 주위로부터 신용을 잃게 됩니다. **62년생**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74년생 미래 계획을 철저히 세워보세요. 86년생 의사를 확실하게 밝혀보세요.

**토끼** **51년생**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각별히 신경 쓰세요. **63년생** 부부간의 갈등이 우려됩니다. **75년생** 불확실한 일은 추진하지도 마세요. **87년생** 많은 이득을 바라지 마세요.

**용** **52년생** 부정한 방법이라 양심에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64년생**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세요. **76년생** 가족들 보다 더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88년생** 현재의 직장을 계속 다니는 것이 길합니다.

**뱀** **53년생** 새로운 일을 추진하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65년생** 욕심을 부리다가 오히려 손실을 보게 됩니다. **77년생** 동쪽에서 귀인을 만날 것입니다. **89년생** 가까운 여행을 떠나세요.

**말** **54년생** 시작부터 모든 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66년생**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극복해 나아가세요. **78년생** 모든 것이 기쁜 하루입니다. **90년생** 검소한 생활을 하도록 하세요.

**양** **55년생** 마음을 굳게 먹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67년생**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은 당연합니다. **79년생** 식중독을 조심하세요. **91년생** 일손을 놓고 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원숭이** **56년생** 바쁘게 움직여야 할 시기를 만날 것입니다. **68년생** 잠시 쉬는 것도 좋겠습니다. **80년생**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92년생**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닭** **57년생** 잘 해결했지만 다른 역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69년생** 남의 재물을 탐하지 마세요. **81년생** 생각지 못한 지출을 하게 됩니다. **93년생** 남이 사용하던 물건은 구입하지 마세요.

**개** **58년생** 살아갈 날이 적막한 터널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70년생** 반가운 연락을 받게 됩니다. **82년생** 해야 할 일은 아직도 너무도 많습니다. **94년생** 남 다른 노력을 필요로 하는 시기입니다.

**돼지** **59년생** 귀하에게 큰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71년생** 지금은 쉴 때가 아닙니다. **83년생**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습니다. **95년생** 어두운 듯 하지만 전혀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 김상회의 四季

### 부캉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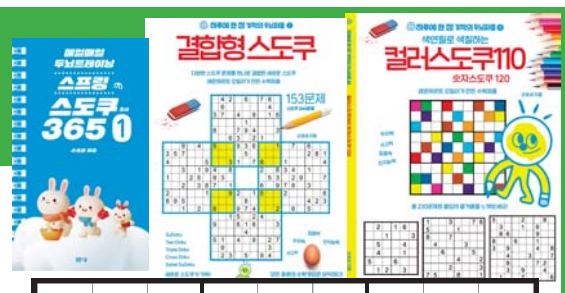
패딩 조끼를 입고 목에는 목도리를 두른다. 머리에는 예쁜 비니도 쓴다. 여행 가방을 챙겨 호텔에 도착하면 직원이 반갑게 맞이한다. 환영한다는 뜻으로 음료와 과자도 내준다. 객실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뒤에는 명상 프로그램에 참여해 조용히 머리를 식힌다. 그런데 주인공이 사람이 아니라면? 반려동물의 이야기다. 동물이 무슨 옷을 입고, 호텔에서 무슨 명상을 하느냐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제는 그리 낯선 풍경이 아니다. 반려동물을 위한 상품 시장은 빠르게 다양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의류다. 반려견 전용 의류 브랜드가 생겼고, 패딩과 니트, 비옷은 물론 각종 액세서리까지 판매되고 있다. 단순히 새로운 소비시장이 생겼다는 것으로 풀이하기도 한다. 반려동물을 통해서 사람들이 생명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 시대가 바뀌면서 동물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보호자들이 반려동물의 아픔과 두려움 그리고 편안한 환경에 대해 눈을 뜨고 있다. 반려동물은 살아 있는 생명이다.

장난감처럼 마음대로 다루는 대상이 아니고, 싫증이 나면 바꾸는 물건도 아니다. 시대적 변화는 동물을 기르지 않는 사람에게도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고 있다. 모든 사람이 반려동물을 좋아하지는 않는다. 다만 자신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생명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고통을 주지 않으려는 태도는 누구에게나 필요하다. 부산 북항에 등장한 상어 캐릭터 부캉이는 대표적인 사례다. 부캉이는 북항이라는 장소와 상어라는 동물을 결합한 이름으로, 사람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무섭고 위험한 상어가 친근한 캐릭터로 표현되면서 사람들이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 것이다. 동물을 인간의 필요에 따라 이용하는 대상이 아니라 저마다의 생태적 역할과 생명 가치를 지닌 존재로 바라보는 변화가 생긴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생각한뼘
스도쿠365



문제출제: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문제풀이: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할인도서

| | | | | | | | | |
|---|---|---|---|---|---|---|---|---|
| 5 | | | 3 | 4 | | 7 | | 2 |
| | 8 | | | | | | | |
| | 4 | 3 | | | | | | 6 |
| 6 | | | | 3 | | | 4 | |
| 1 | | 8 | | | | 5 | | 7 |
| | 2 | | | 7 | | | | 3 |
| 4 | | | | | | 2 | 8 | |
| | | | | | | | 1 | |
| 8 | | 1 | | 5 | 6 | | | 4 |

| | | | | | | | | |
|---|---|---|---|---|---|---|---|---|
| 5 | 7 | 2 | | | 8 | | 9 | |
| | 6 | | 3 | 1 | | | | 2 |
| | | 9 | 7 | | | | | |
| | | | 1 | 3 | | | | |
| | 8 | | | 2 | | | 4 | |
| | | | | 7 | 4 | | | |
| | | | | | 7 | 3 | | |
| 7 | | | | 9 | 1 | | 8 | |
| | 1 | | 4 | | | 9 | 5 | 7 |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 | | | |
|---|---|---|---|
| 발 행·편 집 인 | 이 장 규 | 편집국장 | 윤 휘 종 |
| 인 쇄 인 | 중앙일보(주) | | |
| 광고문의 / 독자센터 | 02)721-9851,9826 / 02)721-9861 | | |
| 일간 메트로 <일반 일간신문, 무료> |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6038호 | | |
| 일간 메트로경제 <유료, 월 2만원> |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142호 | | |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 (02)721-9861

metroseoul.co.kr

metro®

Life

제6038호 2026년 11월 19일 목요일




코스피↑·코스닥↓
국내 상장사
3분기 실적 희비
L1

정부
편의점 상비약
확대 추진
L2




# 코트 속에 착, 가방 안에 쏙 '깃털 패딩', 겨울옷 공식 바꿨다

**메가히트 브랜드 탄생스토리**

## 유니클로 '울트라 라이트 다운'

**가볍고 따뜻한 경량패딩 대중화 열어**
**출시 5년 만에 글로벌 1300만장 판매**

**이너·아우터 활용 가능한 초경량 선봬**
**무게 270g…특수가공으로 부피 줄여**
**소비자 착용방식에 맞춰 라인업 확대**
**작게 접어 보관하는 전용 파우치 제공**

**일상서 반복적으로 입는 기능성 의류**
**유행보다 실용성 앞세운 '라이프웨어'**




유니클로 '울트라 라이트 다운' 볼륨 라인. /유니클로

두꺼운 외투를 여러 겹 껴입어야 따뜻하다는 겨울옷의 공식이 달라졌다. 코트 안에 받쳐 입거나 가방에 넣어 휴대하는 등 패딩을 활용하는 방식이 다양해지면서다. 유니클로의 '울트라 라이트 다운'은 이러한 변화를 이끈 대표 상품이다. 가벼운 무게와 보온성을 동시에 구현해 경량 패딩이라는 카테고리를 대중화한 데 이어 이너웨어와 아우터를 넘나드는 상품으로 진화했다. 출시 5년 만에 글로벌 누적 판매량 1300만장을 기록하며 유니클로를 대표하는 메가히트 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울트라 라이트 다운의 출발은 2007년이다. 유니클로는 당시 기존 라이트 다운 제품의 무게가 약 500g이었던 것과 비교해 무게를 270g까지 줄인 초경량 다운을 선보였다. 세계적인 섬유화학기업 도레이(Toray)와 공동 개발한 결과물이었다. 유니클로는 가벼운 무게와 보온성을 동시에 확보하면서도 이너웨어와 아우터로 모두 활용할 수 있는 다운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소수의 패션 소비자들이 이너웨어로 활용하던 경량 다운을 합리적인 가격의 대중적인 상품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었다.

핵심은 원단 기술에 있었다. 일반적인 다운 재킷은 충전재가 밖으로 빠져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다운팩이라는 별도 주머니와 겉감을 사용하는 이중 구조로 제작된다. 반면 울트라 라이트 다운은 원단에 열과 압력을 가하는 특수 가공을 통해 실 사이의 틈을 좁혀 다운이 빠져나오는 것을 방지했다. 별도의 다운팩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면서 그만큼 무게를 줄일 수 있었다. 도레이와 공동 개발한 고밀도 나일론 원단에는 머리카락 굵기의 약 10분의 1 수준인 초극세사를 적용했다. 원단을 얇게 만들면서도 부드러운 촉감과 내구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술이었다.

경량화는 출시 이후에도 이어졌다. 유니클로는 2010년 가을·겨울 시즌 신제품의 무게를 206g까지 낮췄다고 발표했다. 이는 여성용 프리미엄 다운 울트라 라이트 파카 L사이즈 기준이다. 2011년에는 여성용 울트라 라이트 다운 재킷 L사이즈의 무게를 199g까지 줄였다. 당시 유니클로는 2010년 제품이 높은 인기를 얻으며 12월 말 사실상 완판됐다고 밝혔다. 다만 생산량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웠던 만큼 2011년에는 도레이와의 협력을 강화해 안정적인 생산 체계를 갖추는 데도 힘을 쏟았다. 가벼운 무게뿐 아니라 발수 가공을 강화해 비와 습기에 대한 대응력도 높였다.

상품의 경쟁력은 판매 성과로 이어졌다. 패스트리테일링이 2013년 11월 공개한 상품 개발 사례 자료에 따르면 울트라 라이트 다운은 출시 5년 만에 글로벌 누적 판매량 1300만장을 기록했다. 유니클로는 2013년 가을·겨울 시즌 12개 디자인과 160개 색상·패턴으로 상품군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일부 제품에만 제공하던 전용 파우치도 전체 라인업으로 확대했다. 입지 않을 때는 작게 접어 보관하고 필요할 때 꺼내 입을 수 있도록 해 휴대성과 활용도를 높였다.

이후 유니클로는 소비자의 착용 방식에 맞춰 제품군을 세분화했다. 일반적인 두께의 레귤러 라인과 얇은 두께의 컴팩트 라인, 풍성한 실루엣을 강조한 볼륨 라인 등을 선보였다. 2013년에는 여성용 컴팩트 다운을 새롭게 출시해 베스트 79g, 재킷 123g의 초경량 제품을 선보였다. 이는 당시 일본 시장에 판매된 M사이즈 기준이다. 일반적인 아우터뿐 아니라 가디건처럼 걸치거나 한겨울 코트 안에 받쳐 입는 이너웨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상품의 쓰임새를 넓힌 것이다. 최근에는 봉제선을 최소화한 심리스 라인과 후드형 파카 등으로 디자인 선택지도 확대했다.

이 같은 상품 전략은 유니클로가 추구하는 '라이프웨어(LifeWear)'의 방향성과 맞닿아 있다. 유행에 따라 짧은 주기로 상품을 교체하기보다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입을 수 있는 기능성 의류를 개발하고, 소비자의 생활 방식에 맞춰 활용도를 높이는 방식이다. 히트텍과 에어리즘, 플리스, 울트라 라이트 다운 등이 대표적이다. 특정 유행에 의존하지 않는 기본 상품을 중심으로 계절마다 꾸준한 수요를 확보하는 한편 색상과 소재, 실루엣을 지속해서 바꿔 재구매 요인도 만들어내고 있다. 최근에는 배럴 팬츠와 와이드 팬츠, 스웨트 셋업 등 유행하는 디자인을 반영해 기본 의류를 넘어 패션 수요까지 흡수하고 있다.

이러한 상품 경쟁력은 최근 국내 사업의 회복세와도 맞물린다. 유니클로 모회사 패스트리테일링에 따르면 한국 유니클로는 2026 회계연도(2025년 9월~2026년 8월) 현지 통화 기준 매출과 사업이익이 전년 대비 각각 두 자릿수 증가했다. 한국 단독 실적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한국과 동남아시아·인도·호주를 포함한 지역의 매출은 8094억엔으로 30.7% 늘었고 사업이익은 1683억엔으로 44% 증가했다. 국내 법인 에프알엘코리아도 2025 회계연도 매출 1조 3524억원, 영업이익 2704억원을 기록해 전년보다 각각 27.6%, 81.6% 성장했다.

울트라 라이트 다운의 성공은 단순히 가벼운 패딩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았다. 소재 기술을 통해 기존 다운의 무게와 부피를 줄이고, 이너웨어와 아우터를 넘나드는 새로운 착용 방식을 제시했다. 유행에 민감한 패션 시장에서 기능과 실용성을 앞세운 기본 상품으로 장기간 경쟁력을 확보한 유니클로의 라이프웨어 전략을 보여주는 사례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울트라 라이트다운 재킷

◀울트라 라이트다운 컴팩트재킷

## 메트로 한줄뉴스



▲"1원도 아깝다"…리트 만점자 책 '브레인 악셀' 환불 요구 속출
▲'AI 감시 폭로' 美 페글렌 "커닝 막으려 손글씨? 무의미" /사진 뉴시스
▲김선욱, 내년 '서거 200주년'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 연주
▲러시아 피겨 선수 7명, 핀란드 입국 금지…그랑프리 출전 불발
▲'AG 금메달' 女 핸드볼 주장 권한나 "골 많이 넣은 선수로 기억되고파"
▲"수험생 앞길 밝힌다"…종교계, 수능 당일 특별 기도

SAMSUNG

The all-new
Galaxy Z Fold8
Galaxy AI

samsung.com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된 이미지입니다. 특정 AI 기능 사용을 위해서는 삼성 계정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삼성닷컴을 참고하세요.